

碩士學位 請求論文

英語 時制의 時間的 意味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洪 錫 汝

1993年 8月 日

英語 時制의 時間的 意味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洪 錫 汝



洪錫汝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김문희
審査委員 김용호
審査委員 고태홍



〈抄錄〉

英語時制의 時間的 意味研究

洪 錫 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泰 洪

본 논문은 영어시제의 의미 중 시간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시제와 시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시제는 현재시간과 관계되지만 무표적 시제이므로 상황에 따라 과거, 미래의 시간을 지시한다. 현재시간을 언급하는 경우 순간적 동작,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걸친 현재의 상태나 습관을, 과거의 시간을 언급하는 경우 역사적 현재, 허구적 설화, 전달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 과거의 행위 등이 있으며, 미래시를 나타내는 경우는 우리가 현재나 과거의 사건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미래에도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 시제도 역시 복잡한 의미 범주를 갖는다. 과거의 사건, 상태, 과거 한때의 습관, 과거·현재·미래시를 포함하는 불변의 진리, 현재시와 관련된 태도적, 가정적 과거 등이 그것이다.

현재완료는 과거를 언급하는 한 수단이지만, 동작의 완료, 현재까지의 계속, 결과, 부정의 과거(경험)을 나타내며 현재의 시간과 반드시 관련이 되어있다.

과거완료나 미래완료는 시간의 기준점을 과거, 미래로 각각 옮긴 현재완료의 시간적 의미 범주에 상응한다.

진행시제는 이름 그대로, 주어진 시간에 진행되는 일을 지시한다. 진행에 대응하는 동사의 단순형(비진행)이 완결성을 나타내는데 대하여 진행시제는 비완결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진행형은 현재의 소망 또는 마음가짐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시제는 다르므로 학습자는 그들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시제와 비교하면서 영어시제의 각 용법이 사용되어지는 상황을 항상 연구하고 익혀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시간과 시제	5
1. 시제의 정의	5
2. 시간과 시제의 구분과 상관관계	6
3. 시제와 상, 법성과의 관계	9
1) 시제와 상	9
2) 시제와 법성	12
4. 시간의 구분	13
1) 시점 및 시 구간	13
2) 발화시, 사건시, 지정시의 개념	15
5. 시제의 종류 및 형식체계	16
1) 기본시제	16
2) 복합시제	17
III. 단순시제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	18
1. 현재시제	18
1) 현재시와 관련된 현재시제	18
2) 현재시제가 비 현재시를 나타내는 특수 용법	27
2. 과거시제	38
1) 과거시와 관련된 과거시제	38
2) 현재시, 미래시와 관련된 과거시제	41
3) 과거, 현재, 미래시를 포함하는 불변의 진리	42
IV. 완료시제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	44

1. 현재완료시제	44
1) 완 료	44
2) 결 과	46
3) 현재까지의 상태	48
4) 부정의과거	54
2. 과거완료시제	57
3. 미래완료시제	63
V. 진행시제의 용법과 의미	65
1. 진행시제의 의미 특성	65
2. 진행형의 특수용법	68
3. 미래진행시제의 일반적 특성	71
4. 완료진행시제의 특성	73
VI. 결 론.....	77
참 고 문 헌	81
영 문 초 록	84



I. 서 론

동사는 형태상 현재·과거의 굴절어미를 가지며 통사상으로는 주어 또는 주어·목적어와 공기(co-occurrence)하며, 의미상으로는 동작·상태·존재를 나타낸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시제(tense), 서법(mood), 태(voice), 인칭(person), 수(number)에 따라 어형이 변하는데 이처럼 독자적으로 술부동사(predicative verb)가 취하는 형태를 한정형(finite verb)이라 부르며, 그 밖의 형태를 비 한정형(non-finite verb) 또는 준 동사형(verbal)이라고 부른다.

한정형은 주부(subject)에 대하여 술부(predicate)를 이룬다. 술부는 목적어·보어·부사 등의 한정을 받는다.

동사의 범중 중 시제(tense)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를 따로 떼어놓고 볼 때 그것은 의미상으로 술부의 시간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결부된 미묘한 감정과 의미상의 특유한 뉘앙스(nuance)를 함께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제가 곧 의사소통의 핵심(the heart of communication)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무심코 우리가 영어 동사의 시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단순해 보인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있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시간과 관련하여 완료동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완료시제들이 있다. 시제란 의미상으로 술부의 시간을 가리키고, 형태적으로 동사의 시간을 지시하기 위한 표현형식(form)이라고 본다면 이상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있을 것같이 생각되어 진다. 그리하여 현재시제(present tense)를 의미하는 형태소는 예외없이 술부의 현재시간(present time)을, 과거시제(past tense)를 나타내는 과거형태소는 언제나 과거의 시간(past time)을,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 미래시제(future tense)는 미래시간(future time)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시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발상과 인식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런 종류의 이상적 상응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영어의 고립된 동사의 소위 현재시제 형태는 현재시간(present time)을 가리킨다고 믿을 것이 못된다.

I understand that Jane returns tomorrow.

I see that Biltmore has reelected.

I am glad April has come; March is unpleasant.

위 예문에서 returns, see, is는 모두 현재시제이다. 그러나 returns는 미래시간, see는 심중괄구 과거시간(왜냐하면 신문기사를 이미 보고하는 얘기이기 때문), 그리고 is는 그것이 막 지나간 달(month)을 언급한다는 의미에서는 과거의 시간을, 또한 그 달(March)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개념인 논리적 시간과,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적 시간체계(tense system)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거나,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를 받아들이는 언어수행에 있어서 흔히 시제상의 오류(error)를 범하는 것은 영어시제가 갖는 시간과 시제의 차이, 바꿔 말하면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를 정확히 학습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영어시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첩경은 영어라고 하는 문법체계에서 표현하는 시제(tense)와 그것이 나타내는 시간(time)에 대하여 정확히 고찰해 보는 일이다. 물론 시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시간적 의미자질(temporal meaning feature)만을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시제에 수반하는 상적(aspec-

tual), 법성적(modal)의미 자질까지 함께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상이나 법성적인 개념들은 이차적인 의미이며 일차적 매개변수는 어디까지나 시간(time)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적 의미자질에 우선적 비중을 두고 시제의 의미를 연구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이 어떤 시제를 결정해 주느냐 하는 시제설정 기준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 문법학자들이 설정한 시제를 중심으로, 시제의 용법과 그 시제에 나타난 시간적 의미특성 및 그런 시제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연구하여, 영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이들에게 시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을 좀더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시제설정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시제를 과거와 현재, 두 개의 단순시제만을 인정하려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시제(미래시제, 완료시제, 진행시제)까지 인정하려는 학자도 있다.¹⁾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단순시제 외에 미래시제(will/shall+동사원형) 하나를 더 보태어 이를 영어의 기본시제로 간주하고, 그 외의 완료, 진행시제를 역시 복합시제로 인정하여 전통 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미래시제의 경우 단순히 미래의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미래에 한하고, 미래시제 형태에 진작 표출되는 것은 화자의 의지나 욕망 등 법성(modality)이 포함되는 것이 많으므로 본 논문의 주제를 고려해서 미래시제는 여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시제에는 가정법시제, 서법동사시제, 비한정 동사시제들이 있으나 이것들도 본 논문에서 제외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직설법의 정형적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제가 갖는 세가지

1) C. T. Onions(1904), *An Advanced English syntax*, London : Kegan Paul, pp. 107-109.

의미자질, 즉 시간적(temporal), 상적(aspectual), 서법적(modal) 자질 중에서 시제의 일차적 매개변수가 되는 시간적 의미자질(temporal meaning feature)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장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시간과 시제」라는 소주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시제의 정의’, ‘시간과 시제의 개념 차이와 상관관계’, 시간의 구분, 그리고 ‘시제의 형식체계’ 등을 다루었으며, 제 III 장에서는 단순시제로 간주되는 현재, 과거 시제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들을 분석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시제지도상의 유의점(留意占)을 제시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복합시제로 일컬어지는 완료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완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간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고 제 V 장에서는 범주별 세분없이 진행시제가 갖는 일반적 의미특성들을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은 결론으로 앞서 논한 바를 다시 요약 정리하였다.



II. 시간 (time) 과 시제 (tense)

1. 시제의 정의

일반적으로 시제란 어떤 사건·상태가 발화시(point of speech)보다 앞이나, 뒤냐 또는 그것과 같은 시간이나 하는 시간관계를 동사의 형식에 의하여 나타내는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라고 한다. 그러나 시제안에는 비단 시간관계 뿐만 아니라 시간에 연관되는 여러가지 부대적 상황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시제가 나타내는 여러가지 뜻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먼저 몇몇 문법학자들의 시제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시제의 정의를 내려보겠다.

Tense means the verb-form or forms used to express certain time relations. Thus, one form, e. g. I speak indicates present time, another form, I spoke indicates past time, still another form I shall speak indicates the future time²⁾

Tense is the form assumed by a verb (either by inflection or with the help of auxiliary verbs) for indicating either (a) the time to which an event is referred, or (b) the degree of completeness ascribed to an event at the time of its occurrence.³⁾

A tense is a form of the verb used to mark the time, the continuance, and the completeness of an action.⁴⁾

2) C. E. Eckersley and J. M. Eckersley(1960), *A Comprehensive English Grammar for Foreign Students*, Longmans : Green & Co. Ltd., p. 157.

3) J. C. Nesfield (1922), *English Grammar Past and Present*, London : Macmillan, p. 58.

4) E. A. Sonnenchein (1924),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 Clarendon, Pt. II, p. 59.

이상을 종합하면 시제 (tense)란 사건 (event), 또는 상태 (state)가 일어나는 시간 (time)을 나타내기 위하여 동사가 취하는 여러가지 형태 (form)를 말한다. 이 형태에는 일정한 굴절형이나, 조동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시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권으로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 수 있다.⁵⁾ 또한 시제란 단지 사건이나 상태가 현재, 과거, 미래 중 어느 일정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시간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나 상태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테면 계속하고 있는지, 완료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지 등이 시제형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다.

2. 시간 (time)과 시제 (tense)의 구분과 상관관계

시간 (time)과 시제 (tense)는 별개의 개념이다. 시간이란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와서 영원히 미구의 장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 내려가는, 언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이라 한다면, 시제란, 언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언어 안에 끼어든 불가피한 문법적 요소인 것이다. 즉 시제란 만인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의 경과 과정을 주로 동사의 형태에 의하여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제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Jespersen은 때를 나타내는 용어와 시제를 나타내는 용어를 구별해서 과거의 때를 나타낸 용어를 past라 하고,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 용어를 preterit라고 하였으며, 현재시와 현재시제를 각각 present time, present tense, 미래시

5) 개념적 시간의 3구분설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Jespersen이다. 그는 시간을 일차원, 다시 말해서 일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 x — 로 표
과거 현재 미래
 시하였다. (1924 : 263) 이점에 관한 한 동일한 의견을 전개하는 학자는 많다. (Quirk et al., 1985 : 175-76; B. Comrie, 1985 : 2-3)

와 미래시제를 future time, future tense로 구별하고 있다.⁶⁾

그런데 이 '개념적 시간'⁷⁾ (notional time)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물론 엄밀한 견지에서 본다면 '현재'로 파악하고 있는 시간도 순식간에 흘러 '과거'로 되어 버리는 고로 이 시점은 대단히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현재의 1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머니가 「Sammy, you go to bed right this moment」라고 말할 때 Sammy는 어머니의 말을 이행할 수가 없다. 왜냐면 어머니의 그 발성(sound)이 그의 귀에 닿기 전에 이 순간(this moment)은 이미 과거(that moment)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We are conscious of notional time as having three parts : past, present, and future. What we are not always conscious of is that the present exists only as a dividing line between past and future. The present is a point we can never grasp, because it slips into the past while we are thinks of it. When Mother says, "Sammy, you go to bed right this moment," Sammy cannot obey her, because "this moment" becomes "that moment" before the sound can reach his ears)⁸⁾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도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진술을 끝내기가 무섭게 그 미래는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그러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니며, 우리의

6) O. Jespersen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p. 231.

7) We shall use the term notional time to mean time as we think of it, perhaps naively, in the physical world. We shall use term linguistic time to mean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notional time. - P. Roberts (1954),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Harper & Row, p. 132.

8) Ibid., p. 132.

개념적 시간에는 현재, 미래,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과거, 미래가 우리들의 말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가의 통일적·언어적 표현 형식이 바로 언어에서 말하는 시제 곧 언어적 시간(linguistic time)⁹⁾이며 이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시제(tense)가 곧 시간(time)은 아니며, 영어에서 현재시제라고 할 때에는 그 기능 면에서 볼 때 주로 현재시제가 현재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겠고, 현재의 시간을 표시하는 기타의 시제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영어 동사에는 단순현재(simple present)와 단순과거(simple past)라는 두개의 단순시제가 있는데 이제 이들 시제와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순 현재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관하여 쓰이고 있다. 다음의 문답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1) { A : How does Richard earn his living?
 B : He sells books.

sells라는 동사는 단순 현재시제이지만, 리처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걸친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작년에도 책을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으며 금후에도 팔 것이다.

시간과 시제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예문을 더 들겠다.

- (2) a. The plane leaves for Ankara at eight o'clock tonight.
 b. Ten o'clock news says that there's going to be a bad storm.

(2a)의 leaves와 (2b)의 says는 단순 현재시제들이지만 전자는 미래의 사건에, 후자는 과거의 사건(시간)에 대하여 쓰이고 있다.

9) Ibid., p. 132.

또 다음 동작의 동사 wrote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3) a. I wrote a letter to my brother last week. (과거시제 : 과거시간)
b. If I wrote to my brother now, he would receive the letter tomorrow morning (과거시제 : 현재시간)
c. If I wrote to my brother tomorrow, he would receive the letter on Tuesday morning (과거시제 : 미래시간)

마지막으로 I wish와 It's time 다음에 후속되는 절속의 knew와 were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4) a. I wish I knew where Polly was living now. (knew : 과거시제 : 현재시간)
b. It's time children were in bed. (were : 과거시제 : 현재시간)

이상의 예들에서 보듯 우리는 현재시와 현재시제, 과거시와 과거시제, 미래시와 미래시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사의 시제(동사의 형식)와 시간(그 동사의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제와 상(aspect), 법성(modality)과의 관계

1) 시제와 상(相)

앞(II-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제란 단지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 현재, 미래중 어느 일정시에 일어났다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시간적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나 상태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테면 계속하고 있는지 또는 완료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를 갖는가 갖지 않는가 등이 시제에 나타나는 중요

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는 상(aspect)이라고 하는데 이 상(相)은 문법 범주로 취급되기도 하고 의미 범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① 문법의 범주로서의 상 : 상을 문법의 범주로 볼 때¹⁰⁾ 영어에는 완료상과 진행상 2組가 있다고 말한다.

- (5) a. John lived in Paris for ten years.
- b. John has lived in Paris for ten years.

(5a)는 의미상 주거기간의 완료를 가리키고, (5b)는 현재 완료상으로서 그것이 현재까지의 지속을 의미한다.

- (6) a. John sings well.
- b. John is singing well.

(6a)는 능력(반복)을 말하고, (6b)는 현재 잘 부르고 있는 진행(연기)을 의미한다.

- (7) a. Mary is being a good girl.
- b. Mary is a good girl.

(7a)는 현재 영역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 즉 「그녀는 오늘 착한 척 하고 있다」는 동태적 의미이고, (7b)는 그녀의 본 바탕을 말한다.

10)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R. Quirk et al., 1985 : 188)에서는 상(相)을 문법 범주로 다루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term ASPECT refers to a grammatical category which reflects the way in which the verb action is regarded or experienced with respect to time. Unlike tense, aspect is not deictic, in the sense that it is not relative to the time of utterance.」

② 의미 개념으로서의 상 : 상이 문법 범주의 대립이라기 보다는 의미상 강한 대립을 보인다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P. Roberts (1954 : 468-69), H. Poutsma (1926 : II - II, 287-90), Curme (1931 : 373-88) 등이다.

Curme (1931 : 373-88)은 상을 행위의 양상이나 유형(type), 특성(character)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여, 형태에 의거하기 보다는 의미나 문맥에 의거하여 상을 크게 지속상(durative)과, 행위의 시발점이나 종료점의 어느 한 점에만 주목하는 행위의 시종점상(point-action aspect), 완료상(terminate aspect), 반복상(interative aspect)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령 "I open the door."라는 말을 마술사가 마술할 때에 쓴 말이라면 진행상을 의미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지상(terminate aspect)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I am opening the door."에서는 동작의 진행상을 나타냄이 보통이다.¹¹⁾

그러나 상은 형태에 관계한다기 보다는 의미(意味)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상에서와 같이 단순형(單純形)이니 진행형이니 하는 형태적 구별에 집착할 일은 아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그 상(相)이 양용(兩用)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8) I stay at the inn.

예문(8)은 그 내용상으로 보아 순간상(instantaneous aspect)으로 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계속상(durative aspect)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 상의 파악은 결국 낱말 자체의 의미로만은 부족한 실정이고 보면 문맥(context)에 의해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¹²⁾

11) G. O. Curme (1947), *Principles and Practice of English Grammar*, New York : Barnes & Noble, p. 39.

12) G. O. Curme (1931), *Syntax*, Boston : Heath, p. 378-88.

- (9) a. He ran five miles. b. It runs at last.
 c. My watch has run down. d. The mill runs day and night.
 e. It ran intermittently.

여기서 a는 종지상을, b는 기동상(起動相)을, c는 결과를, d는 계속상을, e는 반복상을 의미하고 있다. 'run'동사가 이와 같이 여러가지 상을 문맥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면 상의 결정에는 정확한 문맥 파악이 선결문제가 아닐 수 없다.¹³⁾

시제와 상에 있어서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상을 문법범주로 다루기 보다는 의미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상은 어떤 의미로든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여러 학자들(Comrie (1976 : 5), Givon(1984 : 277))에 의하여 지적 되었으므로 여러가지 현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일차적으로 어떤 문장의 상황 외적인 시간을 결정짓는 시제라고 하는 것의 내면적인 시간구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주는 역할을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제와 법성(modality)

법성도 상과 마찬가지로 문법의 범주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의미측면에서 바라볼 때 의지, 가능성, 필연성, 의무, 현실성, 비현실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0) a. I start work next week.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실성)
 b. I just wanted to ask you if you could lend me a pound.
 (현재의 의도나 희망에 대한 간접적으로도 책략적인 표현)
 c. I'm working at the moment. (현재 진행의 의미)

13) 「趙炳泰」의(1983), 「英文法 概論」, 新雅社, p. 218.

I'm working tomorrow. (미래의 계획에 대한 화자의 현재의 의도)

I'm always working. (현재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

d. That'll be the postman. (현재의 추측)

e. He'll talk for hours. (습관이나 버릇)

이상의 개념들은 서법 조동사들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특정시제 형태가 어떠한 문맥이나 부사와 함께 쓰였는가에 따라, 혹은 일반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 다양한 법성적(modal)인 개념들을 나타낼 수 있고, 법성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그것과 일치하는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상과 법성을 문법의 범주로서가 아니라, 의미 범주로 그 개념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제 및 논문의 목적에 맞게 상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시제 속에 포함하여 완료시제 진행시제로 나누어 논의 하겠으며, 상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어떤 문장의 시간을 결정짓는 시제(tense)라는 문법범주 속에 포함되는 이차적 의미자질로 간주하고 다루겠다. 법성(modality)도 역시 마찬가지다.

4. 시간의 구분



1) 시점 및 시구간

동사는 그 동사가 갖는 특성에 따라 사건(event), 상태(state), 진행과정(process), 성취(accomplishment) 등의 여러가지 의미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¹⁴⁾ 특정동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에 따라 관련된 시간을 하나의 점(a point in time)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의 구간(an interval or period in

14) R.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gman, pp. 200-09.

time)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적 특성을 논의해 보자.

- (11) a. The eruption of Vesuvius destroyed Pompeii.
- b. Everyone likes Mary.
- c. We go to Brussels every year.
- d. She has read 'Farewell to Arms.'
- e. When Tom entered Agnes's office, she was writing a letter.
- f. Mozart died in 1971.
- g. John ate the cake for five minutes.
- h. John ate the cake in five minutes.

(11a)는 사건동사로, 분명시점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발생적 사건을 의미하므로 '.'와 같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고, (11b)의 likes는 상태동사이므로 어떤 기간에 걸쳐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관련된 시간 영역을 '—'와 같은 직선으로 상징화할 수 있다. (11c)의 경우는 현재라는 시간축을 중심으로 그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와 같이 여러 개의 점으로 표현된다. (11d)인 경우는 'Farewell to Arms'라는 소설을 읽는다는 행위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과정을 요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간은 구간(區間)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 (11e)는 점의 시간과 구간의 시간이 공존하는 문장의 예로 Tom이 Agnes의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은 Agnes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시(時)구간 속에 포함되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11f)의 경우는 died라는 성취동사가 실현된 기간이 1971년이라는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에 속하는 어떤 부정확한 시점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in은 공간 전치사로 사용된 in과 유사하다. (11g)에서는 ate가 달성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기간을 나타내는 for-는 쓸 수 없고 대신

(11h)처럼 in을 쓸 수 있다.¹⁵⁾

2) 발화시, 사건시, 지정시의 개념

제Ⅲ장부터 논의될 각 시제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 분석을 위하여, 사전에 명시해 두어야 할 또 한가지는 발화시, 사건시, 지정시의 개념이다.

Reichenbach (Smith, 1978 : 44) 에 의하면 시제의 시간 지정과 관련하여 시간 개념을 발화시 (speech time : S), 지정시 (reference time : R), 사건시 (event time : E) 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발화시는 'the time at which a given sentence is uttered' 를 의미하고, 지정시는 'the time indicated by a sentence' 로 발화시와 동일할 필요가 없는 시간을 가리키며, 사건시는 'the moment at which the relevant event or state occurs' 로 지정시와 같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a. Marilyn won the price last week.

b. Marilyn had already won the prize last week.

(12a)의 문장에서는 사건시와 지정시가 동일한 것으로 발화시 보다 앞서고 있으며, (12b)에서는 세 가지의 시간이 모두 다른 것으로 발화시는 발화의 순간이 되고, 지정시는 'last week'이며 사건시는 'last week'보다 앞서서 명세화 되지 않은 시간을 나타낸다. 그에 의하면 발화시와 관련된 지정시의 위치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는 데 보통 지정시와 발화시가 동시적일 때 지정시는 현재시를 가리키며, 지정시가 발화시를 앞설 때 과거시를 가리키고, 지정시가 발화시 뒤에 올 때 미래시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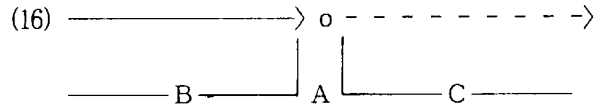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¹⁶⁾

15) 李慶南(1988). "英語의 時制體系 研究", 博士學位論文,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pp. 70-71.

16) *Ibid.*, pp. 73-75

Ⅲ. 단순 시제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

먼저 시제가 표현하는 시간적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좋겠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방향성(unidirectional)을 가진 일직선으로 인식되는 시간에 있어서, A는 현재(발화)시며 II-2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와 미래간의 1점(a point) 또는 하나의 경계선(a dividing line)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무한 확대인 B와 C가 각각 과거시와 미래시이다. '과거시와 미래시는 현재를 축 혹은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시제, 시간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가 분명한 경우는 단순히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이 말한다.

1. 현재시제(present tense)

현재시제는 무표적(unmarked)인 시제이므로, 과거시·현재시·미래시의 어느 것도 지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시제의 본질적 의미는 '어떤 사항이 발화시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화자(speaker)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1) 현재시(present time)와 관련된 현재시제(present tense)

이 경우는 시간적 의미가 과거시제 또는 미래시제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차원이 없는 점(point)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실제상의 가치가 없어진다. 실제 모든 언어에서 '지금(now)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그 길이는 경우에 따라 극히 다양하지만 필요한 유일의 것은 이론상의 영점 (zero point) 이 언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시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과거와 미래 양쪽의 일부를 포함하므로 확실한 과거, 확실한 미래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

- (17) a. Archie is a soldier.
b. Sparks fly upward.
c. I eat breakfast at seven thirty.

(17a)는 He was yesterday, is today, and will be tomorrow의 의미이다. (17b)는 Sparks did in the past, do now, will in the future의 의미이고 (17c)는 어제, 오늘, 내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I did last year, do this year, will next year라고도 할 수 있다.¹⁷⁾

위의 것들은 현재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과거와 미래로 막연히 (indefinitely)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모두 같다. 이것이 단순 현재시제 (present tense)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전에는 단순 현재시제는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동작 (action)이나 사건 (event)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사용되어었다.

- (18) { A : What does she do at the window?
B : She sits and meditates upon her love.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기능)로서는 진행형 시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17) P. Roberts (1954), *op. cit.* pp. 136-37.

렇다고 해서 단순 현재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It rains., Here comes Melrose. 여기에도 시간은 사실상 흐르는 현재의 전후에 뻗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예시한 것과 구별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Hornby(1975 : 83)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here, there로 시작하는 감탄문에는 현재시제가 쓰이며,

- (19) a. Here he comes !
b. Here comes the bus !
c. There she goes !
d. There goes the bell !

만약 위의 진술이 감탄문이 아닐 때에는 진행시제가 쓰인다.

- (20) a. He is coming. b. The bus is coming.
c. She is going. d. The bell is ringing.

필자는 Hornby의 견해를 지지한다. 왜냐면 감탄부호가 없는 경우 어떤 행동이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고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시제에 대한 서언적 얘기와 주의할 점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 보았다. 그럼 이제 「현재시와 관련된 현재시제」라는 작은 주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세분하여 가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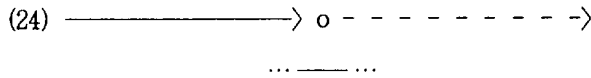
(1) 상태적 현재 (stative present)

상태적 현재시제는 정태적 (stative) 동사의 의미를 갖고 특별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되어 진다. 바꿔 말하자면 부사적 어구들이나 다른 절의 요소들에 의하여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동사의 상태(시간)는 과거와 미래에도 뻗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상태는 잠정적인 것에서부터 영구적인 것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시간이 없는 진술 (timeless statements)이다. Leech (1971 : 1)는 이것을 비제한적 용법 (unrestrictive use) 이라고 말하고 있다.

- (21) a. Mary is tired. b. He is a fool.
 c. Tina resembles his sister. d. He lives in Seoul.
 e. She knows sevral languages. f. This soup tastes delicious.
 g. Everyone likes Maurice. h. He does not belive in hard work.
- (22) a. The Nile is the largest river in Africa.
 b. Peru shares a border with Chile.
- (23) a. Honesty is the best policy.
 b.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c.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21)의 예문들은 (22) (23)의 예문들보다 상태의 시간의 폭 (time span) 이 훨씬 제약이 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편의적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22)는 (21)에 비하여 시간이 폭이 좀더 길다고나 할까(?) 아무튼 “나일강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길다.”거나 “페루가 칠레와 인접하고 있다.”는 것은 지리에 관한 진술로서 항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태적 현재는 (23)에서 보는 것처럼 격언 (proverb) 이라든지 ‘영원한 진리’ (eternal truth) 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과학, 수학, 그리고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타의 진술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25) a. Hydrogen is the lightest element.
 b. Two and three makes five.
 c. None but the brave deserves the fair. (Dryden)

그런데 (21 a, b, c)를 진행형으로 써서 Mary is being tired., He is being a fool., Tina is resembling his sister more and more as the years go by. 라고 나타내면 각 동사가 '정태적 의미'(stative meaning)에서 '동태적 의미'(dynamic meaning)¹⁸⁾로 시간과 뜻이 바뀌어서 "그는 지친 척하고 있다", "그는 바보 짓을 하고 있다.", "Tina는 점점 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Leech, 1971 : 22, 25; Quirk *et al.*, 1985 : 202)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 둘 것은, 대부분의 국내 문법책들이 아무런 단서(但書)도 없이 'resemble'은 진행형으로도, 수동의 형태로도 쓸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당 수정(修正)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He is resembling his father, 처럼 수식어 없이 단독으로 진행형을 쓸 수 없지만 more and more나 less and less와 같은 부사를 동반하여 쓸 수가 있다.¹⁹⁾ 다음은 수동태의 예이다.

- (26) Mary isn't resembled by any of her children. (Halliday : 1967)²⁰⁾

또한 (23a)는 문제의 기간인 '현재성'(presentness)을 강조해 주는 부사적 표현을 써서 상태의 지속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가 있다.

- (27) Honesty is not the best policy these days.

18)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77. (Quirk *et al.* 은 빈도부사의 사용가능성 여부, 명령형 사용가능 여부, 의사 분열문에서의 'do'의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정태동사'와 '동태동사'를 구별하고 있다.
 19) 少西友七編(1980), 「英語基本 動詞辭典」, 東京: 研究社, p. 1251.
 20) 上掲書, p. 1251.

그리고 정태적 의미를 갖는 동사가 때때로 빈도 부사와 함께 습관적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

(28) She is seldom alone.

(2) 습관적 현재 (habitual present)

Leech(1971 : 5)는 '동태적 동사'들을 '사건 동사' (event verb)라 하고 있다. 이 동사들이 단순현재로 사용될 때, '정태적 동사'의 의미들처럼 보통 무제한의 시간 폭 (time span)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동사는 문제의 기간에 걸쳐 되풀이 되는 연속적인 사건 전체를 언급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습관적 현재는 특정의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태적 현재 (stative present)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 용법은 (3)에서 논의할 순간적 용법과 (1)에서 논의한 '상태적 현재'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29) a. My father speaks French well.

b. He teaches English (=He is an English teacher)

c. This tree bears fruit in fall.

d. We go to Brussels every year.

e. Bill drinks heavily.

f. I buy my shirts at Harrods.

g. Water boils at 100°C.

h. He who hesitates is lost.

마지막 두 예문처럼 습관적 용법은 과학 혹은 격언의 성격을 지닌 '영원한 진리' 또는 '시간이 없는 진술'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상태적 현재'와 유사하다 하겠다. 그러나 습관적 현재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반복의 빈도를 밝히기 위하여 빈도 부사를 첨가할 수 있거나 반복과 보편성이란 요소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9e)를 Bill drinks

heavily every night로, (29g)를 Water boils at 100°C every time when it is heated로, (29h)를 Every time someone hesitates, he is lost로 전환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몇몇 습관적 진술들, 예컨대 (29d)가, 'We go to Brussels'처럼 빈도 부사가 첨가되지 않으면 문맥상 의미가 불완전하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한다. '상태적 현재'와 '습관적 현재'의 차이를 하나 더 든다면 Quirk et al.은 '상태적 현재'가 언제나 발화시에 행해지는 어떤 것을 언급하는데 '습관적 현재'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Whereas the state present always refers to something which obtains at the time of speaking, this is not necessarily, or even usually, true of the habitual present.²¹⁾

(3) 순간적 현재 (instantaneous present)

순간적 현재는 동태동사에 있어서 동사의 동작이 줄잡아 발화의 순간에 시작되고 끝나는 단일 동작을 말한다. 이것은 사건동사(event verb)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태적 현재'와 대조적이다.

① 실황 중계

(30) Green passes the ball to Brown. Brown passes it to Black who heads it past goalkeeper and scores (a goal) !

그러나 만약 동작이 발화시의 전후에 시간적 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진행 시제가 잘 쓰인다.²²⁾

21)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80.

22) A. S. Hornby (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83.

(31) Oxford are gaining on Cambrige and are only two lengths behind.
They are now drawing level with Cambrige...

② 마술사의 주문(呪文) 혹은 실연자(實演者)의 해설에서

(32) a. Look, I take this card from the pack and place it under the
handkerchief-so.

b. I shift the flour, salt and baking power into a bowl.

I mix them well. Then I break the eggs into a cup...

(30)과 관련하여 한가지 부언하면 He secuars a goal(그가 1 득점을 한다)은 순간적 용법이지만 만약 이것이 He scores goals와 같이 목적어 복수형이 되면 “그는 득점을 자주 한다”가 되어 습관적 현재가 된다.

③ 수행문(performatives)

현재시제의 순간적 용법은 I beg your pardon. 처럼 단언(asserivatio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건과 언어행위(act of speech)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적이다. 즉 전달내용과 전달행위가 하나이다.

(33) a. We accept your offer.

b. I dare you to jump from this wall.

c. I say that you are wrong.

위 (33)의 예들에서 보는 것처럼 발화시, 지정시, 사건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수행문이다. 이를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34) ————— 1 —————>

S. R. E

(4) 출생지나, 가계(家系)를 나타내는 경우

출생지는 come from-으로 가계는 come of-로 나타낸다.

- (35) a. He comes from Seoul.
b. She comes of a good family.

- (36) a. Where do you come from?
b. Where did you come from?

(35a)는 출생지로서 He was born in Seoul. 의 뜻이며, (35b)는 가계로서 She is descended from a good family. 의 뜻이다. (36a)는 Where are you from?이나 Where do you hail from?과 같은 의미로서 고향(출생지)을 묻는 말이며, (36b)는 “당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즉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I came straight from the railway station. (나는 역에서 막바로 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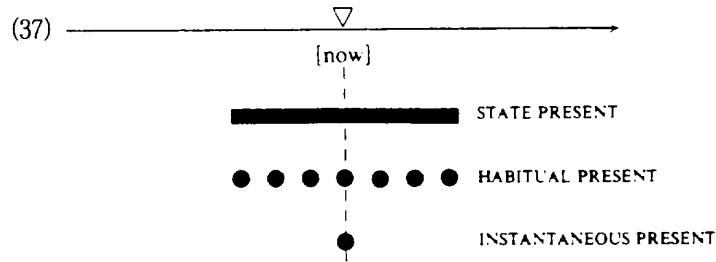
Where do you come from?과 Where are you from?의 물음에 출생지가 아니고 ‘직전에 있었던 장소’를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있으며, 출신국(國)을 물을 때는 ‘What is your nationality?’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²³⁾ (36b)의 의미로서는 “Where have you come from?”이 쓰이기도 하며, 이는 문맥에 따라 이 곳에 오기전의 최근의 거쳐 즉 「어디서 왔습니까?」의 의미로도 사용된다.²⁴⁾

지금까지의 현재시제와 관련되는 단순현재의 세가지 중요한 용법은 다음 (3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⁵⁾

23) 少西友七編(1980), 前掲書, p. 269.

24) 石橋幸太郎外(1968), Question Box Series, Ⅺ(英語一般), 大修館書店, p. 110.

25)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80.



상태 (state)와 사건 (event)의 대립에서 상태란 미분화된 것이고, 또한 뚜렷이 구분된 한계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사건에는 시작과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실체 (entity)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태와 사건은 의미론적인 용어여서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사건이나 상태 동사가 될 수 있다. Suddenly I remembered the letter. 와 I shall remember that moment until I die. 에서 첫 문장의 remember는 기억하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사건 동사이고, 두번째 문장의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상태동사이다.

2) 현재시제가 비 현재시 (非現在時)를 나타내는 특수 용법

(1) 과거를 나타내는 단순 현재

① 역사적 현재 (historical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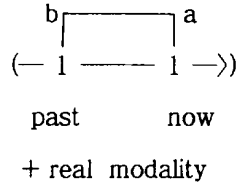
(38) Napoleon leaves the Island of Elba with a handful of men.

이것은 보통 '역사적 현재' (historical present)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재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효과를 자아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어 작가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 Jespersen (1933 : 238)은 이 용법을 '극적 현재' (dramatic present)라 부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문장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39) [Present]

a. viewpoint time (视点时)²⁶⁾

b. event time (사건시)



이것을 설명하면 시제는 현재시 (present) 라는 것이고, a는 사건을 時点으로 바라보았느냐 视点으로 바라보았느냐의 기준이고, b의 사건시 표시는 우리가 이미 통과한 과거(사건시)를, 현재에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 real modality”는 실제적 법성의 의미자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의 법성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

② 기록적 현재 (annalistic present)

역사적 현재와 흡사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사건처럼 열거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현재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40) a. It is not till the close of the Old English period that Scandinavian words appear. Even Late Northumbria (of about 970) is entirely free from Scandinavian influence.

b. With the ascension of Edward the Confessor in 1042 Norman influence begins. (Sweet, 1924 : 216, Curme, 1931 : 356)

26) 時点과 视点의 차이 : Fillmore (1971 : 28ff)의 견해로서, 시점 (time)은 세계는 고정된 (stable) 참조점으로 남고 시간이 그 세계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앞서 있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은 뒤쳐져 있는 것이 된다. 视点 (viewpoint)은 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세계 혹은 인류가 시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경험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여행자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경험 한 부분은 뒤에 (과거)에 있게 된다.

이는 역사적 현재와 비슷하나 과거의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기술(記述)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기록적 현재」는 역사 연대표, 신문의 표제(headline)나 신문의 사건 설명문(caption)에도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현재시제가 거의 필수적인데, 이것은 기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과거성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의 타당성 또는 사실성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41) a. In 1907-New Zealand becomes a dominion.
 b. ITALIAN REDS FALL TO WIN TOP POSITION.
 c. The President Reagan leaves the hospital.

③ 허구적 설화로서의 단순현재 (simple present in fictional nar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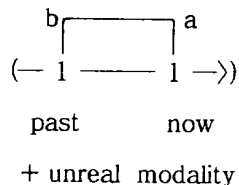
이것이 역사적 현재와의 차이점은, 역사적 현재에 의하여 얘기되는 사건들은 사실적(real)인데 반해서 허구적 설화에 의하여 얘기되는 사건들은 가상(imaginary)이다. 그래서 이 허구적 설화로서의 단순 현재는 의당 설화나 동화에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 (42) The crowd swarms around the gateway, and seeths with delighted anticipation; excitement grows, as suddenly their hero makes his entrance.

이것을 시제의 의미자질 분석표에 의하여 분석해 보면 (43)과 같다.

(43) [Present]

- a. viewpoint
 b. event time



④ 전달내용이 현재에 있어서도 유효한 과거의 행위

이 용법은 전달된 것이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진실하다든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ay, tell, write, learn, hear, see라는 동사가 이 용법에 쓰인다.

- (44) a. The newspapers say it's going to be cold today.
b. The author of this books says that...
c. I see in today's 'times' that...
d. We learn in the book of Genesis that all differnces of language originated in the Tower of Babel.
e. I hear poor old Mrs. Baxter has lost his cat.
f. My friends tell me that you've been well.
g. John writes to say that he can't visit us this week.

여기에서는 동사 tell, write 및 say는 과거에 있어서의 전달(message)의 시발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44a)를 The newspaper said..., (44e)는 I have heard..., (44f)는 My friends have told me..., (44g)는 John has written..., 따위처럼 과거(past) 혹은 완료(perfect tenses) 시제를 당연히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동사의 의미가 전달의 시발점에서 종점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인다. 의사전달 내용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아직도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쓰인다.²⁷⁾

Hornby(1975 : 85)는 「글로 쓰여진 것이나 인쇄된 것에서 인용할 때 보통 쓰이는 동사 say이다. 문서나 인쇄물을 계속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라디오 프로에서 인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왜냐면 인쇄물과는 달리 방송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7) G. N. Leech(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p. 7.

(45) The BBC weather report this morning said that we should have rain

이러한 해석은 확실히 사실적인 일면이 있다. 그런데 Leech에 있어서는 얼핏 보면 이것에 반하는 예가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46) The ten o'clock news says that it's going to be cold.²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이다. 이점에 대하여 필자가 연구한 바를 논의해 보겠다.

(44)의 문장들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인 것은 Hornby(1975 : 85)나, Leech(1971 : 7) 모두가 그 동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그것을 받는 자에게 아직도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예컨대 John tells me you're getting a new car. (자네가 새차를 산다고 John이 말하더군)에서 이 전달 내용(tells)을 받은 화자(I)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약간은 다르지만 I know/understand/have the information that...와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화자의 현재에 있어서의 정보소유 상태'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45)와 (46)을 설명하면 (45)의 발화시는 그 보도가 있었던 오후로서 this morning은 지나간 시점이 된다. 방송내용은 We shall have rain (today), 아니면 There will be rain (today)와 같은 것이다.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일기예보 뉴스는 주관적인 be going to가 아니라, 그보다 객관적인 will/shall을 선호한다. 이것에 대해서 (46)은 주관적인 be going to²⁹⁾가 쓰여서 화자(speaker)는 분명히 자신의 확신을 that절에 담고 있다 하겠다.

현실적으로 뉴스가 담고 있는 것은 It will turn cold (today)와 같은 의미지만

28) *Idid.*, p. 7.

29) be going to는 화자 자신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I am going to leave tomorrow는 출발여부가 확실치 않은 I intend to leave tomorrow보다 실행의 의미가 강하다 : *Idid.*, p. 55.

화자가 '주관적으로 바뀌어서' 자신의 현재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동사도 현재가 되고 있다고 보겠다) 즉 화자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46)은 (45)와는 다른 (44)의 문장들과 같은 것이 된다.

(2) 미래를 나타내는 단순현재

① 미래시 대응

A. 미래는 과거나 현재에 비해서 불확실성(uncertainty)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시제로 미래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단순현재가 보통 현재 혹은 과거의 사건에 부여할 수 있는 확실성(certainty)을 미래에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미래시를 나타내는 부사류를 수반하여 미래지시성을 명시하고 있다.

- (47) a. Tomorrows is Monday.
b. Next Christmas falls on a Thursday.
c. If today is Monday, tomorrow will be Tuesday

(47a, b)에 있어서 진술 내용이 틀림이 없는 사실로서 다가온다. 즉, 사실로서의 미래(future as fact)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없이 사용되며 달력에 대한 진술에 사용된다. 그러나 (47c)에서는 추측이 된다. 한편 * It rains tomorrow afternoon, 이나 * The Giants beat the Tigers tomorrow. 와 같은 문장은 객관적 실현 가능성이 없음으로 용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변치 않는(immutable)것으로 간주되는 미래의 어떤 양상(aspect)이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표출할 수가 있다.

- (48) a. The plane leaves for Ankara 20 : 30 tonight.
b. The term starts on 2nd March.

이것들은 전형적으로 시간지시 부사와 함께 쓰여 그 사건이 이미 변경 불가

능한 기정 사실임을 나타낸다. 만약 (48a)를 진행으로 써서 The plane is leaving for Ankara 20 : 30 tonight이라고 하면 문장의 힘이 약화되어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상의 것들이 현재시제를 가지고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는 통어론적 용이함을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will를 사용하여 미래시제를 쓰거나, 미래표시의 be going to를 썼을 때 법성(modality)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 (49) a. He leaves for Seoul tomorrow.
b. He will leave for Seoul tomorrow.
c. He is going to leave for Seoul tomorrow.
d. He is leaving for Seoul tomorrow.

(49a)는 '그가 내일 서울로 떠난다'는 것은 태양이 뜨는 것이나 혹은 수요일은 화요일 다음에 오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변경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49b)는 그가 부산으로 떠나는 것은 그가 결정한 일이므로 (49a)보다는 결정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49c, d)는 내일 서울로 떠난다는 그의 현재의 의도를 나타내는 미래로서 (49b)보다 또한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B. 현재시제의 미래시간 용법은 종속절 특히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 더욱 일반적이다(if, when, unless, as soon as절 따위). 이 경우 부사절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현재시제가 사용되고 주절의 동사는 보통 미래시를 쓰고 있다.

- (50) a. I'll tell you if it hurts.
b. When the spring comes, the swallows will return.
c. Jeeves will announce the guests as they arrive.

이런 절 속의 미래의 의미는 주절의 동사에 의하여 충분히 투사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미래시제일 필요는 없다는 통사적 용이함(syntactical ease)이 요구하는 사항이다.³⁰⁾ 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대립에도 기초를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종속절에서, 언급된 사건은 '예측'(prediction)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fact)이다. 예를 들어 조건문은 'If X is a fact, then I predict Y'(X가 사실이라면 나는 Y를 예측한다)라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if절에서는 예측적(predictive) 조동사인 will/shall 보다 오히려 사실을 확신한다고 가정하는 현재시제가 적합하다.³¹⁾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51) If you love me, we shall be happy.

여기서 의미의 애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if절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지금 아니면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로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텐데요'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will이 조건절에 쓰이는 경우, 이것은 인칭에 관계없이 '의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된 바와 같이 그런 위치에서는 '예측'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2) a. If you will love me, we shall be happy.

b. I shall be much obliged if you/he will accept my offer.

그런데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순 미래'의 의미로서 조건절에 will이 쓰이는 경우가 발견된다.

(53) a. If the play will be cancelled, let's not go

30) O. Jespersen(1933), *op. cit.*, p. 281.

31) G. N. Leech(1971), *op. cit.*, p. 60.

- b. If he'll be left destitute, I'll change my will
- c. I'll come down to your office after two o'clock, if it will suit you.

이런 문장들의 중요한 특징은 if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과는 달리 '조건절 사건들'이 '귀결절의 사건들'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53a, b, c)의 의미는 (54a, b, c)와 같이 된다.

- (54) a. If, if we go, the play will be cancelled (when we arrive), let's not go.
- b. If, if I change my will, he'll be left destitute, I'll change my will.
 - c. I'll come down to your office after two o'clock, if, if I come..., it will suit you.

부연하면 여기서 will의 미래성(futurity)은 발화시(the time of speaking)에서 바라본 단순미래가 아니라, 조건(절)의 사건(54a의 경우 if we go)의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라는 것이다.³²⁾

② 미래완료 대응

부사절(as soon as, after, till 등의 뒤)에 쓰이는데 이것은 접속사가 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명확한 시제를 요하지 않는다. Jespersen (1924 : 264)은 이것이 'economy of speech'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 (55) a. Telegraph me as soon as he arrives.
- b. Wait till the rain stops.
 - c. We'll sign the document the day after I come back.
 - d. I shall let you know as soon as I hear from you.

32) F. R. Palmer (1987), *The English verb (Second edition)*, Longman : Linguistics Library, p. 157.

Jespersen은 위의 절의 시제는 주절에 언급된 미래로 보아서 이미 과거의 일이 되는 것, 즉 전미래(the before future)라고 하고 있다.³³⁾

(55c)가… after I shall come back이라고 쓰이면 현학적(尙學的)인 표현이다.

현재시제의 지도에 있어 특히 유의(留意)해야 할 점은 ‘습관적 현재’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56a, b)의 B만을 각각 영어로 옮기도록 해 보았더니, 상당수 학생들이 (57)처럼 오역(誤譯)을 하고 있다.

- (56) a. { A : 그는 무엇으로 생계를 세우고 있는가?
 B : 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teach)
- b. { A : 너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느냐?
 B : 나는 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office, work)

(57) a-B : *He will teach } English.
 is teaching }

 b-B : *I am working in that office.

위와 같은 오류들(errors)을 범하는 것은 우리말의 “-하고 있다”를 현재 진행중인 일시적 동작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의 것들은 ‘직업’이나 ‘영속적 사건’이므로 ‘습관적 현재’로 쓰도록 평상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역(逆)으로 “How does he earn his living?”과 “He teaches English.”를 우리말로 옮기는 연습을 시킬 때(그럴 필요가 있어서)는, 각각 “그는 무엇으로 생계를 세우는가?”,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로 인식시켜 두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를 * “I am loving you”, “나는 그의 이름을

33) O. Jespersen (1933), *op. cit.*, p. 240.

안다/알고 있다”를 * “I am knowing his name.”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 이것들은 비완결 동사이므로 진행형이 불가하며, “그는 차를 운전한다 (할 수 있다)”, “그는 불어를 잘 말한다” 등은 직업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당 (58)과 같이 현재시제를 쓰도록 하여야 한다.

- (58) a. He drives a car.
b. He speaks French well.

또한 다음의 경우도 명심해야 한다. A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의 청자(listener) 중 한 사람이 A의 얘기중, 어떤 대목이 우스웠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게 웃을 때, A는 언짢은 기분으로 “당신 왜 웃어요?/무엇 때문에 웃습니까?”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59a 또는 b)와 같이 말하고 싶다.

- (59) a. Why are you laughing?
b. Why did you laugh?

(59a)처럼 하고 싶은 것은 laugh는 행위동사/사건동사로서 시작과 종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동사는 어떤 행위가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59b)는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위의 내용은 ‘설사 웃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얘기중에 또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웃는 버릇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므로 ‘습관적 현재’의 일례로 보아야 한다. 위의 문은 결국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서 There is no reason why you should laugh. You shouldn't laugh. 또는 Stop laughing!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이 바른 표현이 되겠다.

- (60) Why do you laugh?

2. 과거시제 (past tense)

1) 과거시 (past time) 와 관련된 과거시제

과거시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적 특성을 겸하고 있다.

(a) 사건이나 상태는 그것의 완결과 현재의 순간사이에 공백(gap)을 두고 과거에 일어난 것이라야만 된다.

(b) 화자나 작가는 그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난 명백한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³⁴⁾

첫째 조건의 예는 I stayed in Africa for several months로서 I am no longer in Africa라는 의미가 되며, 두번째 조건은 과거시제와 과거시간 지시의 부사들간의 공기관계에서 가장 명백히 입증되어 진다. 예컨대 Freda started school last year/in 1950, 또는 Prices slumped last winter/yesterday와 같다.

(1) 과거의 사건(event), 상태(state), 행위(action)

(61) a. The eruption of Vesuvius destroyed Pompeii. (사건)

- b. [① He was sick then.
② I felt rather tired. (상태)
- c. [① I looked for my glass in my room.
② The tree fell down. (행위)

과거시는 현재시와는 달리 점이 아니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발생한 행위, 또는 시간의 경과를 요하는 것이라도 단순과거 시제로 나타낼 수 있다. a, b, c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62)와 같다.

34)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83.

(62) _____> o - - - - ->

- a. ●
- b. ..._____...
- c. _____

a의 점은 완결성을 나타내며 b의 좌우점은 비완결성을 나타낸다. (b①)에 기간의 부사 for a week를 첨가하면 명확히 완결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62c)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게 된다.

(2) 과거의 습관적 사실

과거의 습관적 사실은 현재의 그것(습관적 사실)에 대응되는 것이다.

- (63) a. My father spoke French well.
- b. He taught English.
- c. The tree bore fruit in fall.

(63a)는 my father에 내재하는 능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시제가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아버지에게 그런 능력이 쇠퇴했을 가능성이 강하다. (63b)는 과거 한때의 습관이며, (63c)는 지금 와서 그 나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가을마다 열매가 열렸었다는 것이다.

(3) 과거의 경험

ever, never와 함께 쓰이나 보통은 현재 완료형을 쓴다.

- (64) a. He is the laziest fellow that I ever met.
- b. I was never at my ease in my father's company.
- c. Did you ever hear of such a thing?

주의해야 할 것은 (64c)는 “그러한 것, 들어본 일이 있어?”로써 “Have you ever heard of such a thing?”과는 다르다. 현재완료를 쓰면 「그러한 것을 들

어본 적이 있느냐?」는 정보를 구하고 있는 (asking for information)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의 질문이지만 이에 대하여 (64c)는 보통, 단순한 감정을 포함하는 외침 (emotional expression)에 불과하고, 그 단축형 “Did you ever?” (대체 그런 것이 정말?)은 언제나 그와 같은 의미이다.³⁵⁾ 이에 대하여 Curme (1931 : 360)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시제와 현재완료 사이에 흔히 뚜렷한 어조 (tone)의 차이가 있으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생생한 인상을 가지고 강한 어조로 말할 때는 과거를 쓰고 보다 조용하고 초연한 어조로 말할 때에는 현재완료 시제를 쓴다고 하고 있다. “Did you ever see anything to beat it?” (그보다 나은 것을 구경한 일이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anything to beat it?” (그것보다 나은 것을 본 적은 없지요?)

(4) 과거완료의 대응

접속사 before, after, when, than, till, as soon as 등으로 시작되는 절에 사용되며, 전후관계로 시간관계가 명확함으로 과거완료 대신 과거가 쓰인다.

- (65) a. He stood there motionless after he appeared (=had appeared).
 b. The task was more difficult than I expected (=had expected).
 c. I ate lunch after my wife came back from her shopping (=had come).
 d. As soon as he heard/* had heard that, he turned pale.

이 과거완료는 잉여적 (redundant)이다. (65d)의 경우 Jespersen (1931 : 8)은 heard를 had heard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때 두개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과거가 선택되고, 부사절의 동작의 ‘완료’에 역점을 둔다면 과거완료가 선택된다고 하고 있다.

35) O. Jespersen (1933), *op. cit.*, p. 143.

2) 현재시, 미래시와 관련된 과거시제

단순 현재시제가 현재시간만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시제도 언제나 과거시만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의 시간 또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과거시제들이 그러하다.

(1) 간접화법의 종속절 과거

- (66) a. { A : Did you say you had no money?
 { B : Yes, I'm completely broke.
- b. { A : How did you know I was Max Wilson?
 { B : Well, I remembered that you were tall and wore glasses.

위 (66a)에 있어서 A의 had는 have(현재시간)의 의미이다. 대답 B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 A는 「네가 현재(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했지?」이다. 여기에 have를 쓸 수가 있으며 had를 쓴 것은 후방조음(backshift)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제의 일치 현상이다. Quirk *et al.* (1985 : 188)은 현재시에 과거시제를 쓴 것은 결국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66b)는 「내가 Max Wilson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아, 자네는 키가 크고, 언제나 안경을 쓰고 다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이다. 이 경우도 was대신에 am, were대신 are, wore대신 wear가 가능하다.

(2) 태도적(심적) 과거

이는 과거의 시간이라기 보다 화자(speaker)의 현재의 비 단정적 완곡적 마음가짐을 반영한다. 의도(volition)나 심적상태(mental state)를 나타내는 동사에 사용된다.

- (67) a. { ① Did you want to see me now?
 { ② Do you want to see me now?
- b. { ① I wondered if you could help us.
 { ② I wonder if you could help us.

(67a) ①은 대충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이며 (67a)의 ②는 대충 「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과거시제 표현이 현재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 되며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대답했을 때도 화자는 그다지 심적 부담이 적어진다. 마찬가지로 (67b) ①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로서 만에 하나 도와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완곡적 표현이며 (67b) ②는 ①보다, 도와 주기를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은근히 바라고 있는 심적태도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3) 가정적 과거

이는 어떤 종속절, 특히 조건절에 사용되어지며 화자의 믿음이나 기대에 반하는 것을 나타낸다.

- (68) a. If I had the money now/in the future, I'd buy it for you.
 b. It's time we all took a rest.
 c. I wish I had a memory like yours.
 d. He talks as if he were(was) the most powerful politician in the country.

위 조건의 과거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상태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을 함의하고 있다. 즉 (68a)는 화자 (I)에게 그것을 살 돈이 현재에나 미래에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68d)에서는 그가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치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직설법 현재(is)를 쓰면 의미는 달라져서 그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일 가능성 내지 현실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된다.

3) 과거, 현재, 미래시를 포함하는 불변의 진리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변치않는 진리를 나타내며 ever, never 등을 수반하는 격언적 문장에 사용된다.

(69) a. Men were deceivers ever. (Shakespeare)

(남자는 언제나 사기꾼)

b. Faint heart never won fair lady. (proverb)

(겁쟁이는 결코 미녀를 얻지 못한다)

c. Care killed a cat.

[걱정은 (아홉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고양이도 죽인다]

이러한 과거를 격언적 과거(gnomic preterite) 또는 총칭적 과거(generic preterite)라고 하는데, 이 용법의 설명으로는 Jespersen(1924 : 259)의 「이것은 일종의 문체상의 기교로서, 지금까지 진리였던 사항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역시 진리라고 하는 결론을 청자 자신에게 명심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명이다.



IV. 완료시제 (perfect tense) 의 용법과 시간적 의미

1. 현재 완료 시제 (Present perfect tense)

현재 완료는 종종 '현재와의 관련성을 가진 과거' (past time with current relevance) (Duirk *et al.* 1985 : 190) 혹은 '현재를 포함하는 과거' (past involving the present) (Leech, 1971 : 30ff) 를 언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현재순간 이전에 일어나서, 현재라는 시점이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는 과거시제와는 다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현재와의 관련성 여부를 비교하여 본다.

- (70) a. John lived in Paris for ten years.
b. John has lived in Paris for ten years.

(70a)는 거주기간이 현재보다 앞선 시간에 이미 끝났으므로 그 명제 (proposition)의 상태가 현재와의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70b)에서는 거주기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함의하고 있으므로 '현재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현재완료 시제를 세분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4가지 용법과 의미가 있다.

(1) 완 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는 흔히 just, now, yet, already 등 현재와 관계가 있는 부사를 수반한다.

Hornby(1975 : 90)는 아주 가까운 과거시에 완결된 동작을, 부사 just가 수반하는 현재완료 시제로 나타낸다고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예들을 들고 있다.

- (71) a. George has just gone out.
 b. We've just finished breakfast.
 c. Brain has just rung up.
 d. It has just struck twelve.
 e. The cat has just had kittens.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론 Hornby의 이상의 분류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완료'라는 분류에서 (71a)는 제외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의 (71a)는 (2)에서 논할 결과(結果)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동사 go가 이동적 사건 동사이기 때문에 (71a)는 George went out a moment ago and he is not here. 의 의미로 볼 수 있고, He has not yet gone out. 는 He did not go out and is still here. 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사한 예를 더 들면 just가 없는 I have finished my work. 는 I finished my work just now, so now I can sit back and rest. 의 의미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완료'와 '결과'의 구별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만 위의 예문 중 (71a)만 제외하면 아무래도 '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위의 완료 용법인 경우 현재와의 관련성이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 현재와 특별히 가까운 과거시점이란 것 때문이다. 현재 화자의 의식중에서 그 사건의 인상(impression)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사 just가 바로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71b)는 곧 We finished breakfast a few moments ago., (71c)는 The clock struck twelve a short time ago., (71d)는 Brain rang a few moment ago., (71e)는 The cat had kittens not long ago. 의 의미이다. 그런데 (71e)가 만약 아래의 (72)과 같이 된다면 '결과'가 될 것이다.

(72) The cat has had three kittens.

위의 문장은 '그 고양이가 세 마리를 다 낳았다'는 완료는 논리상 모순이고, The cat had three kittens and we come to have them(=three kittens)의 의미가 된다 하겠다.

(2) 결 과

이것은 '결과적 과거'(resultative past)라고도 하며, 여기에 쓰이는 현재완료는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쓰이는데 이 경우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는 여전히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 암시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결과의 용법에 있어서는 현재 완료의 공통적 특징인 "현재와의 관련성"은 '현재에 있어서의 결과'의 경우다. 이러한 의미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이동적 사건 동사(go, come)의 경우에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따라서 X has gone : X has come은 각기 현재에 있어서의 결과 'X가 화자의 발화장소에 없다.', 'X가 화자의 발화장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을 과거시엔 없고 현재시에 있다.

(73) a. Mr. White has gone to Burma.

b. I've come to school without my glasses.

(73a)는 He is not here, 즉 Mr. White가 화자의 발화의 장소에 없다는 것이며, (73b)는 I'm here at school without my glasses, 즉 화자(나)가 발화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이다.

(74) a. The taxi has arrived. (The taxi is now here.)

b. He has been given a camera. (He now has the camera.)

c. I've covered from my illness. (I'm now well again.)

d. Someone has broken her doll. (The doll is now broken.)

Hornby(1971 : 89)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75) a. John has bought a car(so now he needn't use public transport).
b. Who has eaten all the cherries?(Who is to be blamed for the fact that there are no cherries?)

그런데 (75)의 a, b는 go와 come의 현재완료에 비하면 '결과'라는 의미특성이 약한 편이고, '완료'라는 의미자질은 더욱 열세한 느낌이다. 다른 예문에서도 결과적으로 과거라는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지만 동사가 갖는 의미에서는 완료인지 결과인지 명백하지가 않다.

- (76) a. I've had/taken a bath.
(I'm now clean.)
b. Jim has washed the car.
(The car is now clean.)

그러나 다음의 예는 아무래도 완료의 요인이 우세하다고 본다.

- (77) They've already left/arrived.

왜냐하면 위의 (77)에서 leave는 '출발점에서 떠나는 움직임' arrive는 '도착점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 go와 come에 대응하나 화자의 시점(視點)과 무관하다는 점에 있어서 go와 come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현재완료에 '화자가 발화의 장소에 비존재, 존재'의 함의가 발생한다기 보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완료'의 요인이 강하다.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사류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의미는 가끔 최근의 부정(不定)의 과거 용법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 (78) Have you seen my slippers?

이 의문은 “내 슬리퍼를 보았니?”의 의미로써 사실상 그 슬리퍼를 본 현재의 결과에 대한 의문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이 물음은 Do you know where they are?(슬리퍼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 (79) a. Where did you put my purse?
b. Where have you put my purse?)

위 두개의 질문의 목적은 지갑을 찾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79a)는 화자가 청자에게 “내 지갑을 어디에 둔 기억이 있느냐?”처럼 과거의 행위(action)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79b)는 화자가 “내 지갑을 둔 곳(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처럼 분명히 그 지갑이 현재 있는 장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옛 영어에서는 ‘운동’(motion)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완료시제)에는 have가 아니고 be동사가 종종 쓰였다. 즉 현대 영어에서 has come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is come이라고 했다. 이러한 be+p. p.가 아직도 여러 경우에 사용되고 있지만 have+p. p.와의 구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80) a. The snow has melted.
b. The snow is melted.

(80a)에서는 눈이 녹는다는 과정 또는 사건에 주의를 돌린 표현이라 한다면 (80b)는 도로 등에서 완전히 눈이 없어졌다는 결과로서의 사실에 주의를 돌린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³⁶⁾

(3) 현재까지의 상태 (state leading up to the present.)

과거의 어느때부터 현재까지의 상태의 계속을 의미한다. 상태동사의 경우 현

36) Hornby(1975), *op. cit.*, p. 90.

재를 포함한다는 것은 상태가 현재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망라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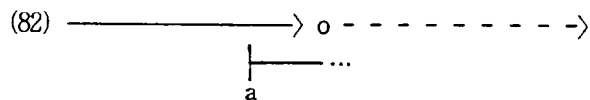
(81) a. We've lived in London since last September.

(London is where we are living.)

b. I've known him for a long time.

c. That house has been empty for ages.

여기서 언급된 기간은 현재순간까지 뻗치고 있지만 '상태동사'는 시간 폭이 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상태 자체는 미래까지 확장 될 수 있다. 즉 (81a)는 We've lived in London since last September and mean to live here for many years to come. 의 의미이다. 이것을 편의상 도식화하면 (82)와 같다.



이 경우도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과, 본질적으로 비 완결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 현재(예, They know each other.)와는 달리 시작의 시점을 어느 정도 명확히 그을 수 있다는 점이 다. (81c)에 과거시제가 쓰이면 기간이 이미 끝난 과거라는 의미가 된다. : That house was empty for ages - but now it's been sold. (저 집은 오랫동안 비워 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팔려서 사람이 살고 있다.)

(81a)는 영국 영어에서는 '과거시제'가 용인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from that time till now'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since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We lived와 We've lived를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다.³⁷⁾

37) G. N. Leech (1971), *op. cit.* p. 31.

대체로 since구문은 현재완료 시제를 요구하지만 다음과 같이 비 현재완료 시제(non-perfect present tense)가 사용되는 예가 있다.

- (83) a. I am walking to work since my car broke down.
b. Soon after the son's birth her husband died. The boy was inclined to be tubercular and since her husband's death she lived mostly abroad. —Christie : Mrs. McGinty's Dead.³⁸⁾

과거시에 시작하여 현재시도 포함하는 시간에 걸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또 그것이 미래에 연장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have been ~ ing' 형식도 쓰인다.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들이다.

- (84) a. She has been waiting to see you since two o'clock.
b. They've been studying English for three years.
c. It has been raining since early morning.
d. The baby has been crying all morning.

이와 관련하여 진행시제에서 볼 수 있는 잠정성의 의미도 완료진행 시제에서 볼 수 있다.



- (85) a. I have lived in Seoul since 1980.
b. I have been living in Seoul since 1980.

완료진행 시제가 쓰인 (85b)는 잠정적임을 나타내고, (85a)에서는 이러한 잠정성의 뜻은 없다. 여기서 계속과 경험의 용법을 비교해보면 (86)은 (84)의 b에 대해서 비 진행형의 문으로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38) 石橋幸太郎外(1968), 前掲書(時制, 法, 態), p. 43.

(86) They've studied English for three years.

(84b)는 '영어 공부를 3년간 하고 있다.'는 지금까지 3년간 계속 공부해 왔으며 현재에도 비 완결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86)의 3년간은 현재까지 계속되지 않고 과거에 종결되어 있어야 좋다. 그래서 문제의 사건도 현재에 비 완결로서는 남아 있지 못하다. 다만 과거에 있어서 3년간 계속해서 완결한 그 일의 결과가 습관적 현재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87), (88)의 a, b도 서로 대응하는 계속과 경험의 문장이다.

(87) a. They have been playing tennis since two o'clock. (계속)

b. She has played tennis since she was high school. (경험)

(88) a. He has been writing letters all morning. (계속)

b. He has written her five letters since he came here. (경험)

(88a)는 현재까지의 비 완결이 지속 내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88b)처럼 five letters(때로는 several letters)와 같이 수를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87b)는 (87a)와는 달리 현재까지의 비 완결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87b)의 경우도 그녀의 '테니스를 치는 행위'가 현재에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87b)도 같은 내용을 계속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비 완결의 상태의 표현을 써서 (89)와 같이 된다.

(89) She has been a tennis player since she was in high school.

이처럼 현재완료와 현재완료 진행의 차이점은 완료시제는 지시된 과정이 발화시 이전에 끝이 났음을 나타내고, 완료진행은 지시된 과정이 발화시까지 계속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완료진행의 선택에 있어서 (88a)에서처럼 지시된 과정이 발화시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 진행은 되지 않더라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완료진행형이 쓰인다.

그러나 진행, 계속의 time relation을 표시하는 부사구와 함께 현재완료가 완료진행형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90) I have lived (=have been living) in this house for seven years.

Hornby(1975 : 89~90)와 Leech(1971 : 45)는 현재완료 진행시제는 능동 상태가 아니라 수동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예컨대 wait, sit, rest, sleep, lie (down)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 특히 잘 쓰인다고 하고 있다.

- (91) a. I've been waiting here for an hour.
b. I've been sitting here all afternoon.
c. These books have been lying on the floor of your study all week.

위의 것들은 (84)의 c, d도 포함) 현재완료시제 (have + p. p.)로 나타내어도 이론적으로 문법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으나 have been ~ing 쪽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³⁹⁾

이와 같은 동사도 상황에 따라 (92)와 같이 '현재진행 시제'가 아니라 '현재완료형'으로 나타내어서 '완료' 또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 (92) a. "Since I've waited so long, you could at least let me in," she said. (완료)
b. He has slept more than two hours. It's time we waked him up. (완료)
c. I've never stayed there more than a week. (경험)

또한 다음 예의 현재완료는 계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I have gone 이 나타나고 있다.

39) A. S. Hornby(1975), *op. cit.*, pp. 89-90.

- (93) “Through my days as a young man and all through my life here I have gone quietly about my work,” he declared, — Sherwood Auderson.⁴⁰⁾

현재완료 진행시제는 보통 그 동작이나 상태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으며 미래에 걸쳐서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언급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제는 지금 끝났다는 동작에 대해서도 쓰이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작이 쉬지 않고 내내 계속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시제를 써서 강조하는 수가 있다.

- (94) a. I don't feel like going out this evening. I ve been working in the garden all day.
 (오늘 저녁 외출하고 싶지 않다. 종일 정원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b. Please excuse my dirty clothes. I ve been cleaning out the garden shed. (옷이 더러워 미안하다. 정원의 광을 청소하고 있었으니.)
 c. Be careful! John has been painting the door.
 (조심해라 아까 존이 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으니까.)
 d. We have been building a garage on to the house.
 (집에 붙여서 차고를 짓고 있었다.)

(94a)는 외출할 수 없는 데 대한 설명이고, (94b)는 옷이 더러워지게 된 변명이다. 그러나, cf. I ve cleaned out the garden shed. Now it's fit to store thing in. (정원의 광은 청소가 끝났다. 이젠 물건을 넣어둘 수 있다.)는 완료의 의미가 된다. (94d)가 진행시제로 쓰인 것은 차고를 짓는데 여러가지 귀찮은 일이 있었음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말하는 사람이 새 차고가

40) 大江三郎(昭和 57年), 「學校文法の基礎(第四卷), 動詞(1)」, 研究社, p. 119.

완성된 사실에만 상대방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면 단순 현재완료를 써서 We have built a garage on to the house. 라고 할 것이다.⁴¹⁾

(4) 부정의 과거 (indefinite past)

'사건동사'가 수반되느니 경우, 현재완료는 과거시에 발생한 어떤 막연한 사건을 가리킨다. 흔히 현재까지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95) a. Have you been to America? (been은 사건동사)
b. He's a man who has experienced suffering.
c. I've known them to strike their children in front of visitors.
d. All my family have had meals.

종종 부정(不定)의 의미가 부사류 특히 ever, never, before(now)에 의해 강화된다. 여기서 부정(indefiniteness)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① 사건의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건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일 수가 있다. ② 사건이 일어난 시간 역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좀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서 '현재완료'는 이전에 적어도 한 번(at least once before now)이라는 의미이다.

- (96) a. I've been to America three times.
b. *I've been to America last year.
I went to America last year.

단순과거에 현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얼핏 보면 현재완료의 이런 용법에도 현재를 포함하는 요소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정(不定)의 용법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의에 의하면, 현재완료

41) A. S. Hornby(1975). *op. cit.*, pp. 90.

의 '상태'의 용법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의 과거'라는 정의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현재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최소 한 번'(at-least-once-in-a-period-leading-up
-to-the-present) 이라고 하게 된다.⁴²⁾

(97) a. Have you visited Gauguin exhibition? (i. e. 'While it has been on')

(Gauguin의 전람회를 보셨는지요?)

cf. Did you visit---

b. The dustman hasn't called at our house. (i. e. 'today')

(97a)가 시사해주는 바는 Gauguin의 전람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반
해, 단순 과거가 쓰이면 (Did you visit---?) 전람회가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97b)는 마음속으로 특정한 기간(어쩌면 '하루')을 생
각하면서 말하게 된다. 이 문장은 청소부가 과거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찾아오
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규칙적으로 오기로 기대되는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예를 더 보고 시사하는 의미
를 알아보자.



(98) a. Have you heard. } the news? The president has resigned.
b. Did you hear.

(98a)는 가까운 과거에 들었느냐는 의미가 되고 (98b)는 좀더 오래된 과거에
들었느냐?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99)의 A에 대한 B의 대
답은 터무니없이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어 진다.

42) G. N. Leech (1971). *op. cit.*, p. 32.

- (99) [A : Has the postman left any letters?
 B : Yes, he did six months ago.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편집배원들은 일반적으로 날마다 편지를 배달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함의적 시간 영역은 '하루 이상' 더 길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⁴³⁾

다음에는 학생들이 흔히 질문하는, 'Have you ever—?'와 'Did you ever—?'간의 시간적 의미차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필자가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여 논의하겠다.

- (100) a. Have you ever seen a tiger?
 b. Did you ever see a tiger?

위의 (100a)와 (100b)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완료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100a)의 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라는 기분이 따르고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의미이다.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쨌든 현재까지에 있어서 언젠가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된다. 이것에 대하여 과거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100b)의 문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정의 과거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컨대 당신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당신의 이웃에, 일전에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 와 사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쩌다가 당신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울에 있었던 때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때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봅시다. 그러한 기분을 영어에 적용한다면 예시한 (100b)와 같은 문장이 된다. 결국 이 경우 (100b)의 문장은 비록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는

43)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93.

다 해도 'Did you ever see a tiger while you were in Seoul?'과 같은 기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직접적으로 어떤 과거의 사건(위의 경우는 서울에 있을 때의 사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경험을 물을 때는 Did you ever---?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Did you ever see a whale?는 곧 '항해 중에'라는 특정의 기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건 그렇고 Have you ever---? 식의 문장과 Did you ever---? 식의 문에서 어느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해보면 Have you ever---?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감정(기분)을 표현할 기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양자간의 구별을 그다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오늘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과서 2종(지학사, 웅진), 6권을 조사해 보았더니, Did you ever---? 형식을 쓴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중에서 이기동과 K. F. Weigelt의 공저 High school English, II-A의 Dialog 부분에서 (미국인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추정됨), 분명히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경험'을 묻는 장합인데도 Did you ever---? 형식을 쓰고 있는 사례가 4건이 발견되었다. (p. 42, 188, 246,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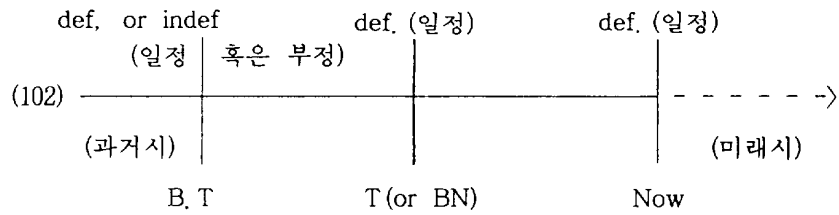
2. 과거 완료 시제 (past perfect tense)

과거완료시제는 '과거에서 본 과거' 혹은 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정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본 과거속의 더 먼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완료가 현재를 시점으로 한 完了, 結果, 繼續, 經驗을 나타낸다면, 과거완료는 어떤 과거를 시점으로 삼아 그때까지의 완료, 결과, 계속, 경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 과거시제와 마찬가지로 과거완료를 쓰려면 이미 확립된 과거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때 과거완료 시제를 쓰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점이 언제나 명시되는 것만은 아니다.

(101) The parcel had already arrived.

과거완료를 논의함에 있어 보통의 과거 기준점인 'then'(T)과 그 이전의 시점 'before then'(BT)를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T는 곧 현재에서 본 이전시 'before now'(BN)이기도 하다.



T(기준점)은 일정(一定)인 반면 BT는 일정이거나 부정(不定)이다.

(103) a. The parcel had already arrived. (부정시)

b. The parcel had arrived on April 15th. (일정시)

다음의 예문들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완료는 앞서 논의된 바의 현재완료가 갖는 기능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04) I had just finished my work when John came. (동작의 완료)

(105) a. When we bought it, the house had been empty for several years. (집을 샀을 때의 상태)

b. He had been married (for) ten years. (그때까지의 상태)

(106) a. She had had six proposals of marriage by the time she was twenty.

b. Had they been to America before? (과거속의 부정)

(107) Mr. Phillips had preached in that church for 50 years. (그때까지의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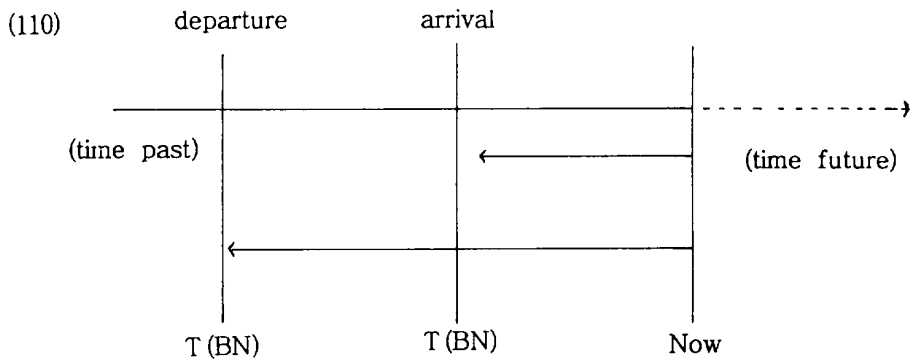
(108) The goalkeeper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play. (과거속의 결과적 과거)

그렇지만, 'the parcel had arrived on April 15th'인 경우는 일정시인 BT(그 이전시간)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현재완료 문장은 없다. 그리고 과거완료에 수반되는 시간 표시의 부사류는 기준점인 T(그 당시), 혹은 BN(지금 이전) 어느 한쪽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109) a. When the police arrived, the thieves had run away.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도둑놈들은 도망쳐 버렸다.)

b. The thieves had run away when the police arrived.
(도둑놈들이 도망쳐 버렸을 때, 경찰관이 도착했다.)

(109)의 문장들 중 a의 경우에 when-절은 기준점 T를 가리키고, 반면 b문장의 when-절은 BN(현재에서 본 이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09b)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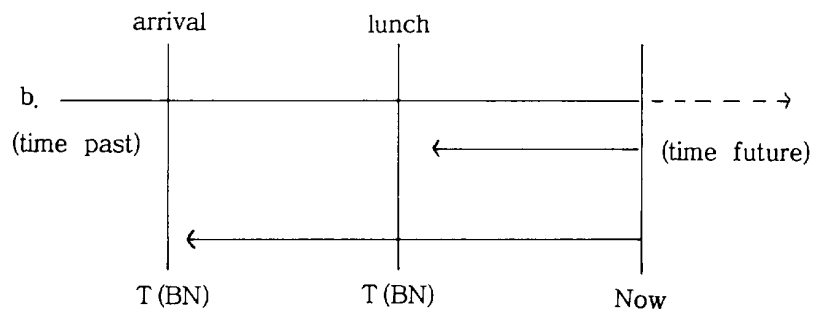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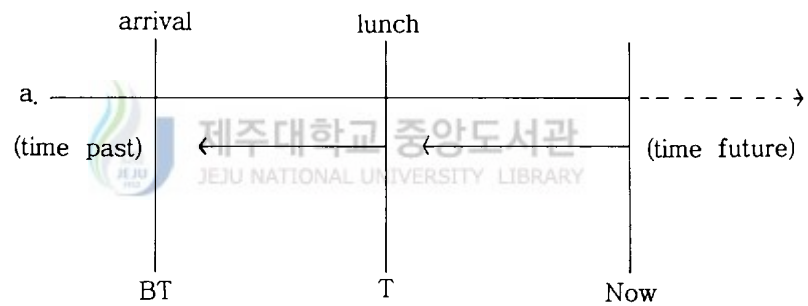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맥락에서 특히 after 뒤에서, before 앞에서 단순과거와 과거완료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가치가 있다. after/before의 앞뒤 문장은 동일 사건의 연속체임을 설명할 수 있다.

(111) a. I ate my lunch after my mife had come back from her shopping.

b. I ate my lunch after my wife came back from her sopping.

위 문장의 과거시제와 과거완료를 둘다 허용하는 것은 접속사 after가 시간관계를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fter자체가 점심식사 이전에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내주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완료'는 잉여적 (redundant)이다. 이 두 진술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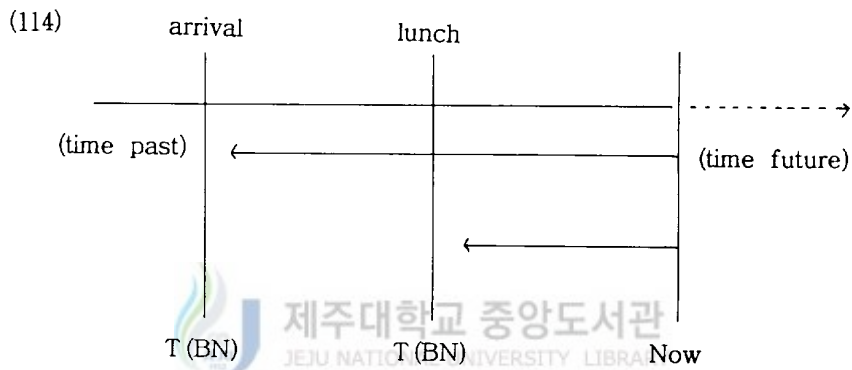
(112)



진술문 a는 도착의 '이전성'(before)을 점심식사를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측정
 한 것이고, 진술문 b는 도착의 '이전성'을 바로 현재순간을 기점으로 측정해
 서, 집에 도착한 시간을 '그 이전'(before then)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때'(then)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a가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⁴⁴⁾ (111)의
 문과 동일한 내용을 before를 가지고 (113)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다.

(113) My wife came/had come back from her shopping before I ate my
 lunch.

이것을 도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2), (113) 예시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하나의 사건이 이미 언급된 다른
 사건보다 더 먼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과거완료를 쓸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을 알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을 설명할 수가 있
 다.

44) G. N. Leech (1971). *op. cit.*, p. 43.

(115) I told him that even though I was not very good at bowling I enjoyed it a lot. Before he left, he told me that he liked my new shirt, and he asked me where I bought it. (H. English, II-A(응진 : 248))

「--하자마자」의 뜻을 가지는 As soon as-, No sooner~than~, Scarcely~before, Hardly~when~의 구문에 있어서, 과거와 관련된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As soon as~의 구문만은 종속절과 주절에 다함께 과거시제를 쓰지만, As soon as~이외의 다른 구문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면에서 순간적으로나마 빠른 주절에 과거완료의 형식을 취한다.

(116) a. As soon as they saw the police, the thieves ran away.

b. No sooner
Scarcely
Hardly

} had the thieves seen the police,

than
before
when

} they ran awa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 expect, hope, intend, mean의 과거완료형은 실현되지 못하고 만 소망, 의도를 나타낸다.

(117) a. I had hoped to catch the 8:30 train, but found it was gone.

b. She had intended (meant, wanted) to do so, but it was prevented by a headache.

3. 미래 완료시제

미래시제 (future tense)는 미래의 어떤 시점 또는 시기를 포함하고 그 시점, 시기까지 계속되는 동작, 또는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미래시제는 동작이 행해지는 때를 가리키나, '미래완료시제' (future perfect tense)는 동작의 완료나 그 결과에 표현의 중점을 둔다.

- (118) a. I shall have finished this work [by five o'clock,
when he comes back. (완료)
- b. I shall have finished this work by five o'clock.
(and shall then be able to sit back and rest.) (결과)
- c. By this time next year I shall have crossed three oceans and have seen four or five continents. (완료 내지 경험)
- d. In the year 2000 we'll have been married (for) thirty years.
(계속)
- cf. ① we've been married now (for) ten years.
② In 1975 we'd been married (for) five years.

다음에는 (119)의 a, b를 비교해 보자.

- (119) a. By the next year George will have taken his university degree.
b. When Gorge gets his degree, he will have been studying for four years.

(119)는 대학에 이미 3년간 재학하고 앞으로 10개월 후에 졸업시험을 보려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얘기다.

(119a)는 비 진행시제로 미래시에 완결되어 있을 행위를 나타내며, (119b)는 진행형시제를 미래시(학위 취득시)에 끝나는 어떤 일정기간 동안(4년간) 쭉 계

속해 간다고 생각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will이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완료로서 과거 또는 현재완료의 추측을 (120)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120) You will have heard the news.

(=I assume that you(have) heard the news.)

과거완료가 '과거의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듯이 미래완료도 '미래의 과거'가 있을 수 있다. (121)이 그 예이다.

(121) By next week end I'll be sick of exams : I'll have had four exams last week and another four in the coming week. -Leech(1971 : 54)

여기에서 미래완료에 있어서 미래의 시점(next week-end)으로부터 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처음의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과거이다. 그래서 명백한 때의 부사 last week와 the coming week로부터 명확히 나타나는 시간은 현재에서 직접 도약된 현재의 이전과 이후이다.



V. 진행시제 (progressive tense)의 용법과 의미

1. 진행 시제의 의미 특성

진행형 (progressive form)은 「be+동사의 ~ing형」으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진행에 대응하는 동사의 단순형(비진행)이 '완결성'(perfectivity)을 나타내는데 대하여, '비완결성'(imperfectivity)이다. 다음 (122)의 a, b를 비교하기로 한다.

- (122) a. He wrote a letter.
b. He was writing a letter.

(122a)는 그가 편지를 쓰는 행위가 과거의 어떤 시간대에 완결되고 있다. 즉 시작과 종결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전해지는데 대하여 (122b)는 행위가 완결되고 있지 않다. 즉 시간과 종결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고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123)와 같다.



진행형은 이미 언급한 세가지 기본 시제와 관련지어서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을 형성한다. (122)의 b는 과거진행의 예시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현재진행, 미래진행은 각각 (124)과 (125)가 된다.

- (124) He is writing a letter.
(125) He will be writing a letter.

이것으로써 위 세가지 진행형을 도식화하면 (126)와 같다.

(126) —————> o - - - - ->

.....
.....
.....

위 도식에서 「……— ……」은 비완결의 일시적 상황의 표시이며 시간의 폭 (time-span)이 ‘현재의 순간’⁴⁵⁾을 포함해서 제한된 기간동안 과거와 미래까지 뻗어 있다.

이처럼 쓰이는 진행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단순현재와 진행형을 등장시켜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 (127) a. The house falls down.
- b. The house is falling down.

a, b의 대립에서 a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말하고 b는 점진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즉 ‘순간’대 ‘계속’(duration)의 대립이며 계속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까지 확정된다. 다음의 예를 더 보자.

- (128) a. My watch works perfectly.
- b. My watch is working perfectly.

(128a)는 “내 시계는 전혀 고장나지 않는다” -시계의 “연속적인 상태” 즉 “일반적으로 내 시계는 믿을 수 있다.”이고 (128b)는 “내 시계는 잘 가고 있다.” -시계의 ‘일시적 상태’ 즉 ‘내 시계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45) 현재의 순간 : 기준점이며, 이 기준점을 Leech는 「With the Progressive Present, the point of orientation is normally identical with 'now', the present moment of real time(현재진행과 관련해서 기준점은 보통 '지금', 즉 실제 시간상으로 보아 현재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Leech(1971), *Ibid.*, p. 17.)

과거에도 제대로 맞지 않았으며, 또 장차 그럴 것이다.'의 뜻이 된다. 그래서 (128)의 a, b는 제한이 없는 계속과 제한된 계속(limited duration)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곧 「비한정적 즉 상대적 현재 용법」과 일시적 상태인 「현재진행」의 대립이다.

진행형이 '일시적 상태(또는 상황)'의 표시라고 할 때 '일시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특정한 것'이라는 개념을 종종 수반한다. 다음을 생각해 보자

- (129) a. I am enjoying the sea side.
b. I enjoy the sea side.

(129a)는 화자 (speaker)가 실제로 해변에 있을 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대체로 해변에서 휴일을 즐긴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해변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차이는 This basin is leaking. (이 대야는 실제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과 This basin leaks. (이 대야는 물이 샌다. -가능성 : 대야가 갖고 있는 영속적인 성질), These shirts wash easily. (이 셔츠들은 세탁이 잘 된다)와 These shirts are washing easily. (이 셔츠들은 세탁이 잘 되고 있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행형이 '비완결성'이라는 점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transition)을 나타내는 '사건동사'에서 아주 잘 예시된다. (예 : become, die, fall, get, go, stop, etc.) 다음을 봅시다.

- (130) a. The bus stops !
b. The bus is stopping.

위의 a는 순간적 현재를 이용해서 "버스가 정지했다!"라고 외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차가 정지상태에 도달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b는 단지 버스가 정지하려고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다는 뜻만을 가질 뿐, 멈춘다는 보장은 없

다. 진행형이 갖는 이러한 의미는 과거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31) a. The man was drowning.

b. The man drowned.

(131a)에는 ...but I jumped into the water and saved him. 을 첨가할 수 있지만, 그 남자가 사실상 죽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두번째 문장에서는 이를 첨가할 수가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진행상의 의미를 요약하면 ① 계속성(duration) ② 제한적 계속성(limited duration) ③ 완료의 불필요성(unnecessity of completion)의 세가지 양상(특징)을 갖고 있다 하겠다.

2. 진행형의 특수 용법

일시적 단일사건들(single happenings)을 언급하는 진행형의 주요용법 이외에 몇 가지 특수용법이 있다.

(1) 별개의 습관적(habitual) [또는 반복적(interative)] 진행형의 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과거 및 단순현재의 단일의 습관적 용법에 대응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32) a. In those days, we were getting up at 7 o'clock.

(그 당시 우리들은 7시에 기상하고 있었다)

b. I am taking dancing lessons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나는 댄스교습을 받고 있다)

c. Mr. Robinson is cycling to work until his car is repaired.

(Robinson씨는 차가 수리될 때까지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제한된 계속'이라는 진행의 개념은 연속되는 개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연속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의미는 '제한된 기간에 걸

친 습관'(habit in existence over a period)⁴⁶⁾인데, 여기에서 문제의 기간은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사적 표현에 의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런데 now라는 부사가 수반되었을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a, b를 비교해 보겠다.

(133) a. She is now writing a dedective story.

b. She is now writing a letter.

a의 한가지 해석은 현재시에 비완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그녀는 지금 현재 탐정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다」)또 하나는 now가 현재를 포함해서 비한정적 시간에 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녀가 지금은 일반 소설이 아닌 탐정소설을 쓴다」라는 비한정적 시간에 걸친 습관 내지 반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b는 「지금 현재 한통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한가지 의미밖에 없다.

(2) 진행형이 특수한 관용적인(idiomatic)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의 진행형이 갖는 의미중에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134) Day by day we are getting nearer to death.

이 경우의 의미는 지속적인 내지는 연속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진행이 갖는 '과정'이라는 용법에 있어서 '계속적'이라는 의미 요소가 이 예문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요소를 압도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의 연속성은 대개 continually, for ever 및 always와 같은 부사 혹은 부사구에 의해 강조된다.

46) *Ibid.*, pp. 27-28.

- (135) a. My father was for ever getting into trouble with the law.
 b. I'm continually forgetting people names.
 c. I know a man who's always giving his wife expensive presents.

c의 문장에 쓰인 always는 이에 대응하는 단순현재의 구문인 I know a man who always gives his wife expensive presents에 쓰인 always와 의미와 다르다. 이 문장은 “나는 아내에게 매번 비싼 선물을 사주는 남자를 알고 있다”(즉 대개 남편이 선물을 사주는 모든 기회에)이지만, 진행형이 쓰이면 대충 ‘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을 때가 한번도 없다’라는 의미이다.

(3)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특성의 동사에 현재진행 또는 과거진행을 써서 ‘현재의 소망 혹은 마음가짐’(present wish or attitude)을 비단정적으로 정중하게 표현한다.

- (136) a. ① I'm hoping to borrow some money.
 (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주었으면 합니다)
 ② I hope to borrow some money.
 (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주세요)
 b. ① I'm/was wondering you can/could help me.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② I wonder if you can help me.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c. ① You are forgetting the moral arguments.
 (당신께서 도덕적인 논의를 잊고 계시군요)
 ② You forget the moral argument.
 (당신은 도덕적인 논의를 잊고 있어요)

구어체에서 정규의 I hope..., I wonder..., 따위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진행형이 비단정적(tentative)이므로 심적 태도를 표출하기에 더 정중한 방

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⁴⁷⁾ 앞에서 (V-1)에서 본 바와 같이 진행형에는 ‘일시성’(temporariness) 및 ‘가능한 미완료성’(possible incompleteness)이라는 개념이 깃들여 있으며 현재시제(present tense)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책임없다(공양이 없다)’(lack of commitment)는 데까지 확대된다. I hope to borrow some money는 청자(addressesee)에게 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I’m hoping은 화자가 희망하는 태도를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청자가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숨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3. 미래진행시제(future progressive tense)의 일반적 특성

이 시제의 형식은 「will/shall be+ ~ing」로,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시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137) This time next week I shall be sailing across the Atlantic.

그러나 will/shall+진행형의 독립적인 용법도 있다. 이때 미래(future) 자질은 진술내용이 발화시보다 뒤에 있는 미래시에 발생하리라는 지시적 기능이고 진행형 자질은 ‘미래의 당연성’(future as a matter of course)⁴⁸⁾을 강조한다. 그래서 Leech는 이러한 용법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t is tempting to speculate that this usage has grown up through the need to have a way of referring to the future uncontaminated by factors of volition, plan, and intention which enter into the future meanings of will/shall+Infinitive, the Present Progressive, and be going to+Infinitive.⁴⁹⁾

47) R. Quirk, *et al.* (1985) *op. cit.*, p. 210.

48) *Idid.*, p.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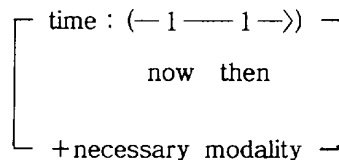
49) G. N. Leech (1971), *op. cit.*, p. 62.

그러나 실제의 문장들을 가지고 이 ‘미래진행’의 의미 특성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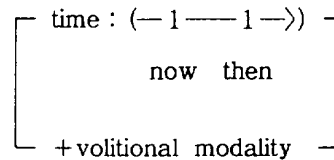
- (138) a. { ① We'll be flying at 30,000 feet.
 ② We'll fly at 30,000 feet.
 b. { ① When will you pay back the money?
 ② When will you be paying back the money?

먼저 (138a)를 보면 이것은 기장이 탑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는데 a의 ①, ②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a의 ①은 ‘정상적 예정비행 고도가 30,000피트’(30,000 feet is the normal and expected altitude for the flight)라는 의미이고, 이것에 대하여 a의 ②는 ‘조종사가 30,000피트 높이로 비행하기로 막 결정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It could well be that the pilot had just decided to fly at the specified height)는 의미이다. 좀더 부연하면 a의 ①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지 않은 사실에 관한 단순한 진실(a mere statement of fact)이라고 한다면, a의 ②는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주관적 표현의 성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39) a-① 미래진행



a-② 미래



다음에는 (138b)에 대하여 살펴보자

(138b)의 ①은 “당신은 그 돈을 언제 변제하겠소?”라는 의미로서 상황에 대한 요구가 좀 돌연한 것이 되는 반면에, b의 ②는 상대방이 언젠가는 당연히

상환하리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어 후자가 좀더 재치있고 신중하며 정중한 애기가 된다. 굳이 우리말로 옮겨 본다면 “당신은 그 돈을 언제 변제하게 되는거죠?”이다. 그리고 b①은 청자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갚아 달라는 독촉의 의미에 가깝고 b②는 언제 갚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인 표현법으로 ‘미래진행’ 형식의 용법이 흔히 쓰여지게 되었음을 Quirk et al.이나 Leech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직접 연루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기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의미자질의 선택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의 문장에서 보듯이 양 형식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⁵⁰⁾

- (140) a. The next train to London will $\left[\begin{array}{l} \text{arrive} \\ \text{be arriving} \end{array} \right]$ at platform four.
- b. The sun will $\left[\begin{array}{l} \text{set} \\ \text{be setting} \end{array} \right]$ in a minute.

4. 완료진행 시제 (perfect progressive tense)의 특성

완료진행 (have been ~ing, had been ~ing, will/shall have been ~ing)도 과거완료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요소 (components)가 갖는 의미에 의해 완전 예측이 불가능한 의미영역 (range of meaning)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살펴본 완료시제와 진행시제가 연결된 모든 의미특징이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완료진행 (present perfective progressive)을 예로 들고 생각해 보자.

- (141)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and he still hasn't turn up.

50) R. Quirk. et al., (1985) op. cit., p. 127.

위의 시제의 의미자질 중 첫번째 자질인 현재는 현재시(지정시 역할)를 나타내고 있고, 두번째 시제 자질인 완료(시제)는 그것이 갖는 의미특성인 과거(past)란 의미에 의해 명제(proposition)의 발단(發端)이 적어도 지정시(현재)보다 앞선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세번째 자질인 복합시제 요소 진행은 명제 내용의 내면적인 시간을 좀더 구체화 시킴으로써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Quirk et al. (1985 : 211)의 말을 빌리면 '일시성'(temporariness)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위(141)의 시간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거나 막 끝난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의 예를 더 보자.

- (142) a. I've been writing a letter to my nephew.
 b. How have you been getting on?
 c. It's been snowing again.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전형적으로 진행형과 같이 쓰이는 '활동동사'이다. 이 동사의 의미는 대충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의미는 비진행 현재완료가 갖는 '현재까지의 상태'라는 의미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척도상의 '일시성'과 '영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 (143) a. The Browns have lived in that flat since their marriage.
 b. The Browns have been living in that flat since their marriage.

(143b)는 화자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Brown씨 부부가 결혼해서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계속'이라는 의미자질이 있기 때문에 완료진행은 보통 순간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에 쓰기 어렵다.

- (144) a. He has been starting his car.

b. ?* He has been starting his book.

(144a)의 경우는 자동차의 신뢰성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다. 이와는 달리 (144b)는 계속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에 계속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특히 구어체 영어에서) 일시적 상태를 가리키는 sit, lie, wait, stay와 같은 동사의 경우는 보통의 현재완료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I've sat here all afternoon보다 I've been sitting here all afternoon이 더 관용적이다.

최후의 '성취' 혹은 '완료'의 의미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동사(사건동사 및 일부의 활동 혹은 과정동사)인 경우, 현재완료 진행과 현재완료 사이에는 상당한 의미차가 있다.

(145) a. Who's been eating my dinner?

b. Who's eaten my dinner?

(145a)는 미완료, 즉 some of it is left의 의미이며 (145b)는 '이미 모두 먹어 버렸다' 즉, It's all gone의 의미이다.

(146) a. I've cleaned the windows.

b. I've been cleaning the windows.

(146a)는 단순완료로서 결과적 의미를 갖는다. 즉 The window are clean의 의미이며, (146b)는 I haven't finished them yet의 의미를 갖는다.

(147) a. *I've written a novel, but I haven't finished it.

b. I've been writing a novel, but I haven't finished it.

(147a)는 진행형이 갖는 '미완료성'(incompleteness) 때문에 비문이다. 지금

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완료진행의 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은 ① 계속성/제한된 계속성을 갖는다.

② 현재 혹은 최근의 과거까지 계속된다.

③ 반드시 완료되지 않는다.

④ 여전히 명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⁵¹⁾



51) *Idid.*, p. 212.

VI. 결 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시제라는 문법범주가 갖고 있는 시간적 의미(temporal meaning)를 중심으로 시제와 결부된 상적, 법성적 의미들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시제에 관하여 좀 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시간과 시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시제에는 시간적 의미가 일차적 의미 자질로 내포되고 있으며, 상적, 법성적, 의미 등이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시제의 의미를 아는 데는 무엇보다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그에 부수되는 상적, 법성적 의미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현재시제는 형태는 현재이지만 무표적인 시제(unmarked tense)이므로 그의 범주가 다양하여 과거시(past time)와 미래시(future time)의 어느 것도 지시할 수가 있다. 현재시제가 현재시를 나타내는 경우 시간이 없는 진술(timeless statements) 곧 현재의 상태, 문제의 기간에 걸쳐 되풀이 되는 습관, 동작이 줄잡아 발화의 순간에 시작되고 끝나는 단일 동작 등이 있다. 과거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통과한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소위 '역사적 현재', 역사적 현재와 비슷하나 과거의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기술적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적 현재', 과거에 전달된 내용이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과거의 행위 등이 있고, 미래시를 나타내는 경우는 미래에도 현재 혹은 과거에 부여할 수 있는 확실성(certainty)을 부여하는 것(예, Tomorrow is Monday.) 예측보다 오히려 사실을 확신한다고 가정하는 것(예, If it rains tomorrow, I will put off my departure.) 그리고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미래완료를 대

신하는 것들이 있다.

둘째, 과거시제는 그 의미특성으로, 사건 또는 상태가 그것의 완결과 현재의 순간사이에 공백(gap)을 두고 과거시(past time)에 일어난 것이라야 하고, 화자 또는 작가는 그 사건상태가 일어난 명백한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현재시제의 습관과 대응되는 '과거 한때의 습관'이 있으며, before, after, than 등의 접속사가 쓰여 전후관계로 시간관계가 명확하므로 과거완료를 대신하는 것, 화자가 현재의 비 단정적 완곡적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태도적 과거'(attitudinal past), '과거의 경험', 과거·현재·미래시를 포함하는 '불변의 진리'(격언적 과거) 등이 있다.

셋째, 완료시제에 있어서 현재완료는 언제나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아주 가까운 과거에 완료된 동작', '과거의 결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태', '부정의 과거'(indefinite past) 즉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경험' 등을 진술하는 '현재와의 관련성을 가진 과거'(past time with current relevance)이다. 과거완료, 미래완료는 기준점이 각각 과거, 미래로 옮겨지며 현재완료의 시간적 의미 범주에 대응한다. 한가지 유의점은 after의 절과 before의 앞절에서는 '단순과거'와 '과거완료'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진행시제의 의미 특성으로는, 진행에 대응하는 동사의 단순형(비진행)이 '완결성'을 나타내는데 반하여 진행형은 '비 완결성'(imperfectivity)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시제대 진행시제간에 시간적 의미차이는 물론 상적, 법성적 의미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영어시제의 의미범주가 너무나 다양하여 각 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와 그에 부수되는 상적, 법성적 의미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영어학습자들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어렵다든지 영작상의 과오를 범하는 부분은 '현재시와 관련된 현재시제'(특히 '상태적·습관적 현재') 부분

이다. 그 이유는 그것의 의미 범주가 너무나 복잡하고 폭이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학습자가 이 시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한 영작상의 오류(error)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시제(과거·미래시와 관련된 것 제외)란, 과거와 미래의 양쪽을 포함하므로 확실한 과거도, 확실한 미래도 아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의 폭(time-span)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작(be+ ~ing)도 아니다. 즉 색깔없는 시간(colorless time)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되면 「He gets up early every morning.」과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에서 ‘습관적 동작’이니, ‘불변의 진리’니 할 필요가 없이 왜 현재시제가 쓰이는지 이해가 될 것이며 또한 영작에 있어서도 「그는 자동차를 운전한다(직업 또는 능력)」는 「He drives a car.」로, 「그는 ○○고등학교에 다닌다.」에서 「--에 다닌다」가 과거에 「다녔다, 미래에 다니겠다, 다니게 될 것이다」, 「현재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어느 것도 아니므로 「He goes to / attends ○○High School.」로 바르게 표현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재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기타 모든 시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데 전이(轉移)적 효과를 낼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시제외의 시제에 대하여 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과거시제의 ‘격언적 과거’와 ‘심적과거’이다. 다시 말하면 「Care killed a cat.」와 「I wondered if you could help us.」를 과거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밖에 현재완료에 있어서의 유의점은, 현재완료가 과거에 대한 진술이지만 반드시 현재시가 포함되는 것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진행시제에 있어서의 유의점은 과거 또는 현재진행이 ‘현재의 소망 혹은 마음가짐’을 비단정적으로 정중하게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 : I’m hoping to borrow some money.)

결론적으로 시간과 시제는 다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그들의 상관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시제와 비교하면서 영어시제의 각 용법이 사용되어지는 상황을 항시 연구하고 익혀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는 가정법시제, 서법동사시제, 비한정 동사시제라든지, 시제에 포함되는 상정, 법성적 의미들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언어라고 하는 생명체는 그 자료의 방대성과 복잡다단한 점을 드러내어 그 실체들을 명시적으로 체계화시켜 규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통감하였다. 그리고 시제의 시간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론 언어자료를 거의 직설법 문장의 정형동사에 국한하였는데 보다 더 폭 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자료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박양구(1981), “영어에 있어서 시간과 시제”, 「한성대학 논문집 5」.
- 李慶南(1988), “英語의 時制體系研究”,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 이기동(1992), 「영어 동사의 문법」, 신아사.
- 이기동, Weigelt, K. E. (1992), 「High School English I, II-A, II-B」, 웅진출판사.
-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1991), 「High School English I, II-A, II-B」, (주)지학사.
- 趙炳泰, 朴慶洙, 宋秉鶴(1980), 「英文法 概論(I)」, 新雅社.
- 趙成植(編輯主幹)(1990), 「英語學 辭典」, 新雅社.
- _____ (1990), 「英文法 研究(II)」, 新雅社.
- 鄭好永(1980), 「高等英文法」, 新雅社.
- 荒木一雄, 小野經男, 中野弘三(1991), 「助動詞(現代の 英文法 第九卷)」, 研究社.
- 石橋幸太郎外(1968), Question Box Series IV (時制, 法, 態), VIII (英語一般), 東京:大修館書店.
- 大江三郎(昭和 57년), 「學校英文法の 基礎(第四卷, 動詞(I))」, 研究社.
- 少西友七編(1980), 「英語基本動詞辭典」, 研究社.
- 宮 田幸(1991), 「教壇の 英文法」, 研究社.
- 安 井稔(1989), 「英文法を 洗う」, 研究社.
- 슈제트 하덴 엘긴, 「言語學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nguistics?)」, 최용재 역 (1992), 영설출판사.
- 조프레이 엔 리치(1971), 「英語動詞의 意味論(Meaning and The English

- Verb」, 高景煥 譯(1985), 翰信文化社.
- 칼 베이커(1989),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朴義載 譯(1991), 翰信文化社.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_____ (1985), *Tense*,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 Heath.
 _____ (1952), *English Grammar*, New York : Barnes & Noble.
 _____ (1947), *Principles and Practice of English Grammar*, New York : Barnes & Noble.
- Eckersley, C. E. & J. M. Eckersley(1960), *A comprehensive English Grammar for Foreign Students*, Longmans, Green & Co. Ltd.
- Fillmore, C. J. (1971), "Santa Cruze Lectures on Deixi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Fries, C. C. (1940), *American English Grammar*,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Givón, T. (1984), *Syntax :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ornby, A. S. (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Second Edition.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_____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Johnson, M. R. (1981), "A Unified Temporal Theory of Tense and

- Aspects," Tedeschi, P. J. and A. Zaene (eds) *Syntax and Semantics 14 : Tense and Aspects*, New York : Academic Press.
- Leech, G. N.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gman.
- Nesfield, J. C. (1922), *English Grammar Past and Present*, London : Macmillan.
- Onions, C. T. (1904), *An Advanced English Syntax*, London : Kegan Paul.
- Palmer, F. R. (1987), *The English Verb*, New York : Longman, Second Edition.
- Poutsma, H. (1926),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II - II, Groningen : Noordhoff.
- Quirk, R., S. Greenbaums,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 _____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 Longman.
- Roberts, P. (1954),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 Harper & Row.
- Sonnenschein, E. A. (1924), *A New English Grammar*,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Sweet, H. (1924),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Clarendon.
- Wrenn, C. L. (1949), *The English Language*, Methuen.

<Abstract>

A Study Of Temporal Meaning In English Tenses

Hong, Seok-yeu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Tae-h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temporal meaning that the English tense comprises, so that the learners of tense may learn it more easily, let alone form a right judgement on it.

Therefore in this study, temporal meaning is more emphasized on than other meanings of the tenses, viz. aspectual and modal meaning.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

Tense and time do not accord well together. The most important meaning feature in the English tense is temporal meaning one, and aspectual and modal ones are additional.

Though the simple present tense is associated with present time, it has various eategories of meaning, for it is unmarked tense. Therefore its te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3.

poral meaning elements include the possibility of indicating other time than present time.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 present tense can refer to past and future time.

In that case where it refers to present time, it represents a single action begun and completed approximately at the moment of speech, and present state and habit while are, in a strict sense, thought of as expanding to past and future time. The cases where the present tense refers to past time are so-called 'historic present' describing the past as if it is happening now and fictional narrative. The simple present tense is also used for references to what was communicated in the past. It indicates that what was communicated in the past continues to be true or effective. Furthermore it refers to future time. In that case it represents FUTURE AS FACT; that is, it attributes to the future the same degree of certainty that we normally accord to present or past events.

Like this, the present tense has the complicated meaning elements. So we should consider carefully the situation in which each usage of the tense to be used.

As most commonly used, the past tense combines two features of meaning :

a) The event or state mus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with a gap between its completion and present moment. b) The speaker or writer must have in mind a definite time at which the event or state took place.

The past tense also includes the complicated meaning elements : the event, temporary state or habit of the past corresponding to those of the present

tense, past experience, and so-called 'eternal truths' including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that is, gnomic preterite). In teaching the past tense, the teacher should lead the students not to mistake the gnomic preterite and the attitudinal past tense for past time.

Present perfect, as a means of referring to the past, differs from the simple past on three counts, viz. continuation up to the present, present result, and indefinite past. As it were, the present perfect is past time with current relevance. So we recognize that it, without fail, comprises present time.

The past perfect and the future perfect correspond to temporal meaning elements of the present perfect, with time of orientation moved to past, and future respectively.

As its name suggests, the progressive tense indicates a happening in progress at a given time. It is different from the simple present tense in that the latter represents perfectivity, but the former represents imperfectivity. The progressive tense may also be used to refer tentatively to a present wish or attitude.

In conclusion, in order to understand English tense,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ense and time differ, and always try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school, English teachers should make efforts to have the students consider carefully the difference between tense and time, and the situation in which each usage of the tense to be used, compared with that of the tense of the Korean language .